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앨런 긴즈버그의 반문화적 시학과
정치성



2018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손 준 혁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앨런 긴즈버그의 반문화적 시학과 정치성

지도교수 윤 희 수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손 준 혁

손준혁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 년 2 월 23 일



목 차

I. 서론	1
II. 민주주의를 위한 반문화와 정치혁명	9
III. 마약 그리고 감시와 처벌	33
IV. 전 지구적 공동선을 향한 노력	53
V. 결론	87
인용문헌	93

The Countercultural Poetics and Politics of Allen Ginsberg

Son, Junhyeck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dissertation aims to study Allen Ginsberg's poetry related to the US political affairs. Ginsberg criticizes political actions of the US government through his poetry. His countercultural stance against US government's policies and his personal experiences are combined to make him criticize the US politics more straightforwardly. To Ginsberg, writing poems is a way of revealing and responding to unrightful political actions of the US government. In this study, I will focus on how he points out the wrongdoings of the US government in various areas such as domestic policies, drugs and international affairs.

His poems on American domestic politics are analyzed in chapter II. In the whole life of Ginsberg, America's oppressive mood troubled him. McCarthyism was one of the major topics of his confessional poetry. Controversy over "Howl" made him think about America's oppressive social mood once again. Politicians tried to control the American society for their benefit consistently. They also waged another war against counterculture, which made Ginsberg worry about America's future. He pointed out the blunder of government policy and expressed his wish for democracy for American people through his poetry

to his final day.

In chapter III, his poems on drugs are analyzed. Ginsberg used drugs to write poems, but he thought the US Government made many victims of drugs to achieve its political goal. He also thought the US policies on drugs were wrong and the government even planned to set him up with drugs. So, Ginsberg determined to gather information to fight against the government. In that process, he came to learn about immoral acts of the US government. In this chapter, Ginsberg's opinion on the drug and the US policy on it are discussed.

In chapter IV, his poems on international affairs are explored. Ginsberg experienced international political atmosphere during his overseas travel. Especially, he felt the oppressiveness of communist regime very deeply in Cuba and Czechoslovakia. The experiences led Ginsberg to pay much attention to oppressive policies of the US government during the cold war period. He wrote poems on international political affairs related to the US government and also joined the rally against US war policies. In this chapter, I will focus on how Ginsberg dealt with these affairs in his poems.

Because the US government's wrong policy continued, Ginsberg never stopped criticizing it. He mentioned about irrational politics of the US whenever he felt it was needed. The countercultural poetics and politics of Allen Ginsberg are based on such intention.

Keywords: Allen Ginsberg, Political Poetry, Drug, War, Reportage, Democracy, Counterculture, Common Good.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시인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 1926-1997)의 작품들이 어떠한 정치적 지향성을 드러내는지를 조명해 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긴즈버그의 작품 중에서 정치적 사건이 명확히 서술되어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고 시인이 미국과 관련된 사건들을 어떻게 시에 담아내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1955년 10월 7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식스 갤러리(Six Gallery)에서 대표작 「울부짖음」("Howl")의 최초 낭송은 오늘날의 미국시인 앨런 긴즈버그를 알리는 시작이 되었다. 「울부짖음」의 유명세로 긴즈버그는 비트 세대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가 되었으며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미국의 방황하는 청년에서 사회운동가와 예술가로 변모하였으며, 자신의 문제부터 미국사회와 국제정세에 이르는 폭넓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가 되었다. 긴즈버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갔고, 세계 여러 곳을 오가는 활동을 하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긴즈버그는 로버트 로웰(Robert Lowell), 실비아 플라스(Sylvia Plath) 등과 함께 대표적 고백시인으로 꼽힌다. 긴즈버그는 다른 고백파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작품에 그려내었다. 시인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시인이 속한 사회의 모순들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었다. 그래서 긴즈버그의 작품에서는 고백파적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대표작 「울부짖음」과 『울부짖음과 그 밖의 시들』(*Howl And The Other Poems*)에 같이 수록되어 있는 시에 자신이 속했던 미국사회의 모순점들을 그려낸다.

시인이자 소규모 출판업자였던 로렌스 페링게티(Lawrence Ferlinghetti)

가 『울부짖음과 그 밖의 시들』을 싼 가격에 출판하고자 영국에서 작업을 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다시 원고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세관의 검열에 걸려 재판까지 가게 되는 사건은 긴즈버그의 반사회적 이미지를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Tytell 639). 그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사회의 부조리함을 훗날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울부짖음」의 발표 이후 경험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시인의 반사회적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시인 스스로 더욱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게 만든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혼란한 시대상을 몸소 체험한 지식인으로서 긴즈버그는 적극적으로 잘못된 정치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 더구나 여행을 하면서 우연하게 엿히게 된 사건들은 긴즈버그가 작품을 통해 특정 정치상황을 신랄하게 나타내게 되는 원인이 된다. 긴즈버그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평생 동안 월트 휘트먼(Walt Whitman)과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를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시인의 미국에 대한, 특히 정치상황에 대한 관심은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식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 정치적 사건들과 시대상이 본인의 개인적 경험과 만나면서 긴즈버그를 새로운 형태의 시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마치 “작가의 주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의해 결정된다. 적어도 이것은 우리 자신의 시대처럼 격동적이고 혁명적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라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말(Orwell 315, 박경서 재인용 124)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긴즈버그가 처했던 시대상황은 자연스레 시 창작 소재의 일부가 되었다.

의도치 않게 경험하게 되었던 정치적 사건들은 긴즈버그가 정치적 의견이나 불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사유의 표출 방법 중 하나는 당연하게도 시 창작이었다. 긴즈버그는 자신의 초창기 작품에서부터 정

치적 발언을 해 왔었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 더욱 직접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긴즈버그는 1959년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The San Francisco Chronicle*)에 실었던 자신의 에세이 「시, 폭력, 그리고 흔들리는 어린양」("Poetry, Violence, and The Trembling Lambs")을 통해 시와 급진적 사회 비판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주장했다. 그것은 그 이후 평생 동안 지속되는 시인의 세계관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다. 긴즈버그는 화폐제도(Money System), 전쟁, 성적 억압, 순응, 권위주의, 물질만능주의에 대해 비판한다(Heims 87).

거대한 가학적 경찰 관료제는, 식자들을 박해하고, 마약에 대한 공공연한 거짓으로 대중들을 세뇌시키고, 대중들을 구역질나게 만든 영적탐구를 행해 온 약물 상용자들을 위협하며 파괴하려는 중앙정부에 의해 조장되어 모든 도시에서 발생했다.

대중적인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람들, 돈을 위해 일하지 않은 정적주의자들, 또는 고용을 위해 거짓말하고 무기를 만드는, 또는 살해와 협박 속에서 군대에 입대하는, 빈둥거리기, 생각하기, 환영 속에서 휴식하기, 스스로 아름답게 행동하기, 대중 속에서 진실하게 발언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민주주의에 의해 영감을 받았었다.—미국 속에서 현재 이들 영혼의 운명은 어떠한가? 경제의 더욱 많은 부분이 정신적이고 기계적인 전쟁준비에 얽어 매여진 이 미국에서.

이것에 대한 통찰을 표현하는 문학은, 절대적 개별성의 어떤 발현에 대한 공감(그들의 마음속까지도)을 저해하는, 대중적으로 정형화된 언론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충성심 있는 중개자들에 의해 조롱되고, 잘못 해석되고 억압되었다. 내가 의미하는 건 저널리스트들, 상업적 출판업자들, 서평가들, 다수의 문학교수들 등등이다. 시는 혐오된다. (DP 4)

긴즈버그의 이러한 비판적 자세는 정치적이라는 말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작품에서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잘못된 정치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 그런데 긴즈버그의 비판의식은 다른 고백과 시인들의 경우처럼 내면의 고백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 긴즈버그는 끊임없이 시를 쓰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가하며 여러 매체를 통해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긴즈버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작가의 내면세계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것은 긴즈버그에 대한, 특히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주로 초기 시들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로, 비트세대 문화와 자기고백에서 시작되는 문명비판, 사회고발 등이 주제가 되어왔다. 하지만, 시인이 경험했던 특수한 상황들,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작품의 시사성은 긴즈버그라는 작가와 그의 작품을 내면적인 것으로만 연구하기에는 아쉬움을 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의 긴즈버그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의 긴즈버그에 대한 연구와 대조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다. 최근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긴즈버그의 시가 학계에 쉽게 편입되지 못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손혜숙은 그것을 긴즈버그의 “대중적 인지도와 시단에서의 영향력, 시대적 상징성에 비해 학계에서 외면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며, 펄로프(Marjorie Perloff)의 표현을 빌려 “긴즈버그의 문학적 성취와 그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비평계의 무지와 무관심의 반영”(529)이라고 하였다. 정은귀 역시 비트세대 문학이 문화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미국 시 주류 비평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하는 것은 비트세대를 따라 다니는 “기행과 동성애, 환각, 마약 등의 부정적 요소들이 그들의 예술적 성취를 평가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했다”(148)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역시 「울부짖음」과 「카디시」(“Kaddish”) 그리고 「해바라기 경전」(“Sunflower Sutra”) 등의 50년대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폭넓은 긴즈버그 연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준다.

외국에서의 긴즈버그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 비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긴즈버그의 정치성이 언급되는 연구가 많다. 그러나 셰일린 지(Shaleane Gee)의 『적격의 문제들: 전후 미국 문학과 정치 문화 속에서의 증언』(*Questions of Competence: Testimony in Postwar American Literary and Political Culture*)이나 제이슨 스콧 스팅글러(Jason Scott Spangler)의 『대공황에서 그레이트풀 데드까지: 문화적 기억과 비트세대』(*From the Great Depression to the Grateful Dead: Cultural Memory and the Beat Generation*)와 같은 학위논문의 경우는 대체로 연구 속에서 긴즈버그의 정치성이 언급되기는 하나 긴즈버그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주제에 맞춘 부분연구로 긴즈버그를 다루기 때문에 긴즈버그의 정치성에만 연구가 집중되지 않는다.

루크 워커(Luke Walker)의 「워즈워스의 ‘틴턴 수도원’에 대한 신낭만주의적 응답으로서의 앨런 긴즈버그의 ‘웨일즈 방문’」(“Allen Ginsberg’s ‘Wales Visitation’ as a neo-Romantic response to Wordsworth’s ‘Tintern Abbey’”)의 경우는 긴즈버그의 시에만 집중한다. 이 연구는 워즈워스와 긴즈버그의 낭만주의적 연결고리를 연구하면서 블레이크의 정치성과 긴즈버그의 정치성을 비교한다. 더불어 긴즈버그의 시 「웨일즈 방문」과 LSD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본 연구의 방향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웨일즈 방문」만을 집중 연구하는데 따른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와 같이 긴즈버그의 정치성에만 집중하는 연구는 긴즈버그와 친분이 있던 엘리엇 카츠(Eliot Katz)의 학위논문 『급진주의적 시각: 앨런 긴즈버그의 정치적 시학과 작품』(*Radical Eyes: Political Poetics and the Work of Allen Ginsberg*)인데, 인용된 시가 다르고 궁극적으로 긴즈버그의 정치성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다. 더불어 이 모든 선행연구들에서는 본 연구에서 특히 살펴보고자 하는 특정 정치사건이 묘사된 시들은 전혀 연구되지 못했다.

정치성이라는 말은 긴즈버그에게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다. 그것은 긴즈버그가 평생 동안 잘못된 정치에 저항하는 반문화적 태도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긴즈버그 연구에서 정치성이라는 용어는 빈번히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정치성은 주로 내면에서의 비판으로만 결론지어졌다. 그것은 긴즈버그에 대한 정치성 탐구가 주로 1950년대의 새로운 문학 운동을 주도했던 비트세대와 거기에 속했던 긴즈버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트세대가 끝난 이후에 긴즈버그는 새로운 시대들을 맞이하며 살았다. 그리고 창작을 멈추지 않았다. 긴즈버그의 비판은 그가 세상을 떠나는 1997년까지 지속된다. 이제 우리는 1950년대를 넘어서는 긴즈버그가 어떤 비판을 하며 그것에서 비롯되는 정치성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Gee)는 “긴즈버그가 은유가 아닌 증거를 보여주었다(Ginsberg was presenting not “metaphors” but evidence)”(54)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은유와 증거를 함께 보여주었다가 더 정확하겠지만, 지의 주장은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하는 긴즈버그 시의 특성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긴즈버그 시의 특성은 시에 특정 사건이나 시인 자신의 경험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시에 서술된 내용들은 시를 통해 긴즈버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설명해 주는 증거가 된다. 이 증거들은 긴즈버그가 시를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되므로 긴즈버그의 시를 읽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의 관점에 동의하면서 긴즈버그 시에 나타나는 더욱 직접적인 증거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우선 II장에서는 미국정부가 시행한 억압적인 정책과 그것에 관련된 사건들을 다룬 시들을 주로 연구한다. 미국의 특정 정치적 사건들은 긴즈버그에게 정부의 무능함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되었고, 시인이 미국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미국에서 발생했던 불합리한 사건들

을 보여주며 미국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초기 시 「아메리카」 (“America”)에서부터, 미국정부의 조세활용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는 「펜타곤 푸닥거리」 (“Pentagon Exorcism”), 새 정치를 바라며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쓴 「새로운 민주국가 소망 목록」 (“New Democracy Wish List”) 등의 작품을 통해 미국정치에 대한 시인의 불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시들을 살펴본다. 시인이 가졌던 마약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으며, 마약과 특정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작품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마약은 긴즈버그가 핵심적으로 가담했던 비트문화와 히피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서 미국사회의 오랜 쟁점이다. 「아메리카」 (“America”)에서 긴즈버그는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마리화나를 피운다(I smoke marijuana every chance I get)” (CP 154)라며 자신이 마약을 한다는 사실 거침없이 밝히고 있는데, 긴즈버그는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발언을 통해서도 공공연히 자신이 마약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나중에 미국정부정책과 맞물려 시인에게 골칫거리로 작용한다. 마약에 대한 시인의 생각이 나타나는 「에테르」 (“Aether”)에서부터 마약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는 「반 고흐의 귀에 죽음을!」 (“Death to Van Gogh’s Ear!”), 「임시속보」 (“News Bulletin”) 등의 작품들을 통해 긴즈버그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마약문제가 미국정부와 어떤 연관이 있었으며, 미국정부의 마약에 대한 정책 방향과 그에 대한 긴즈버그의 정치적 견해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본다.

IV장에서는 국제정세와 관련된 시들이 분석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의 어두운 분위기는 긴즈버그가 처음 시를 창작하기 시작할 때에도 영향을 미쳐 긴즈버그가 사회적 관심사를 다룬 시를 창출하게 했지만, 국제정세는 긴즈버그에게 있어 큰 관심거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긴즈버그는 여행을 하면서 국제정세를 직접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1960년대 대두된 히피문화와

맞물리면서 냉전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다. 이 시기의 경험은 시인이 히피문화가 끝난 이후에도 국제정세와 전쟁 위협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지속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긴즈버그 시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냉전시대에 긴즈버그가 경험했던 사건이 나타나 있는 「5월의 왕」(“Kral Majales”), 베트남전 반대 집회의 분위기를 전하는 「시카고의 열려진 창」(“An Open Window on Chicago”), 전쟁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제소르 거리의 9월」(“September on Jessore Road”), 「거창한 퍼레이드 후에」(“After the Big Parade”) 등의 작품들을 통해 미국 정부의 전쟁에 대한 노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슬라보예 지젝 인터뷰』에 실려 있는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의 관점도 도입하여 살펴본다. 이 작업에는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슬라보예 지젝 인터뷰』에서 다루지고 있는 지젝의 다양한 사회문제 접근법 중에서도 좌파적(Leftist) 관점이 적용된다. 좌파적 관점을 적용하는 이유는, 긴즈버그가 보인 정치 노선이 좌파적 관점에서 해석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긴즈버그를 좌파로 정의내리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 올바른 사회를 위한 긴즈버그의 노력에 좌파적 경향도 있었음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앨런 긴즈버그의 작품이 미국의 정치 상황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시와 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하나의 뚜렷한 사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비트세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긴즈버그가 정치적 공동체로서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성찰하고 그것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작품들을 분석하는 이 연구를 통해 시대에 명민하게 반응했던 한 비판적 정신의 지향점을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민주주의를 위한 반문화와 정치혁명

긴즈버그의 미국정치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것은 가정의 분위기에서 기인하는데, 부모가 둘 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긴즈버그의 부모는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긴즈버그의 아버지 루이스(Louis)는 사회주의자였고, 어머니 나오미(Naomi)는 공산주의자였다. 특히 긴즈버그의 아버지 루이스는 스페인 내전이나 나치당의 발현 등에 극히 관심을 보였고, 그로 인해 새로운 국면이 가져오게 될 정치적 영향에 대한 가족 간의 토론은 종종 열띤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Morgan 21). 이런 가정의 분위기는 긴즈버그가 평생 동안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는 바탕이 된다. 비트세대를 거치면서 억압적 사회분위기에 대해 반문화적 자세를 지향하고, 시를 통해 정치혁명을 시도했던 것 모두 가정사에서 비롯된 유년기의 경험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긴즈버그가 자신의 시 「아메리카」("America")를 통해 매카시즘시대 미국사회의 어두운 분위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가정사에서 기인한다. 같은 시집에 포함된 「울부짖음」이나 「캘리포니아의 슈퍼마켓」("A Supermarket in California")에서도 자신의 상태를 여과 없이 시에 드러내며 미국사회의 현실을 보여주지만, 특정 정치 사건들을 언급하며 직접적인 의견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아메리카」와 차이를 보인다. 자신의 불안정한 모습과 심적 상태를 내보이며 미국사회 분위기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하는 이 시의 중반에서 시인은 역사적 사건들을 끄집어낸다.

미국이여 탐 무니를 석방하라
미국이여 스페인 왕정파들을 구하라
미국이여 사코와 반제티는 죽어선 안된다
미국이여 내가 스코트보로 소년들이다.

America free Tom Mooney
America save the Spanish Loyalists
America Sacco & Vanzetti must not die
America I am the Scottsboro boys. (CP 155)

탐 무니는 1916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퍼레이드에 폭탄을 터뜨린 혐의로 누명이 씌어져 사형을 언도받았던 인물이며, 스페인 왕정파는 스페인 내전에서 사회주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싸운 군부였다. 1920년에 매사추세츠 주의 한 신발공장에서 무장 강도와 살인을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코(Nicola Sacco)와 반제티(Bartholomeo Vanzetti)는 무정부주의자였기 때문에, 누명을 썼다는 증거가 많았음에도 결국 사형을 당했다. 백인소녀의 거짓 증언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었던 스코츠보로의 흑인소년 9명 역시 결국 사형을 당했다. 이들은 모두 미국의 입장에서 적대시 되는 인물들이었다. 긴즈버그는 미국사회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시에서 폭로하고 있다.

긴즈버그는 「아메리카」를 창작할 당시의 미국사회 분위기를 묘사하기 위해 위의 정치적 사건들을 끄집어내었다. 위의 부당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때에는 그래도 당시 미국의 공산당들이 공공연하게 정치적 캠페인을 벌이며 누명쓴 이들을 지원할 수 있었다(Ramazani 347-48). 하지만 「아메리카」속 1950년대 미국사회의 억압적인 분위기는 한 치의 반체제도 용납하지 않는다. 시인의 어머니 나오미 긴즈버그(Naomi Ginsberg)가 공산당원 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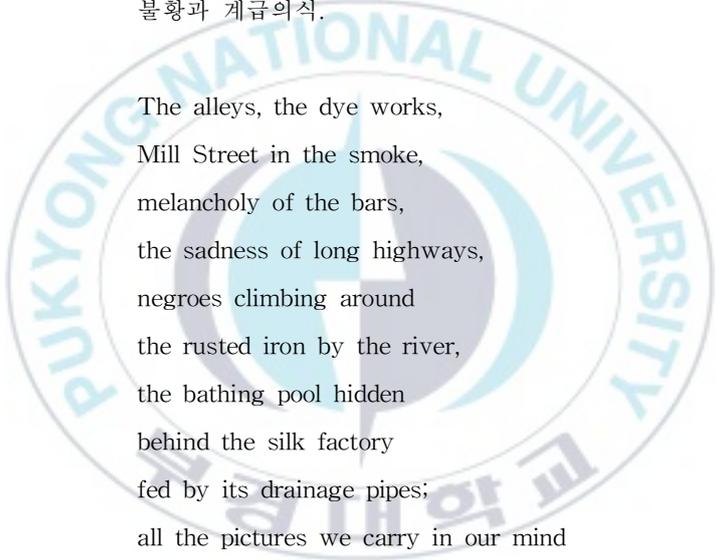
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다소 특이한 경험으로 인해 시인은 미국사회의 부조리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긴즈버그의 가정사는 긴즈버그의 비판에 특별함을 가져다준다. 지젝은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제공해주는 좋은 영화들이 대개 유럽 이민자 출신의 감독이나 외국인 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많다”(지젝 196)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것은 “외부에서 보는 것이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것보다 더 적절한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지젝 196)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출생했지만 이민자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배경은 긴즈버그가 미국사회에 쉽게 편입되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그런 경험이 미국에 대한 긴즈버그 시 속 비판에 날카로움을 주었다. 이런 강력한 경험은 또한 같은 시대를 공유했던 비트세대들과 정치적인 의견 차이를 보이는 기저가 되기도 한다. 긴즈버그는 대체적으로 정부에 반하는 좌파적 성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지만 잭 케루악(Jack Kerouac)은 우파로 정치적 노선을 바꾼 것을 예로 들 수 있다(Poetry 10). 비트세대가 끝난 이후에 각자의 삶에 변화가 있었음으로 인해 정치적 노선이 바뀐 것이다.

또한, 1930년대에 발생한 세계대공황의 분위기는 긴즈버그에게 또 다른 유년기의 경험을 제공한다. 세계대공황이 가져다 준 경제적 어려움은 긴즈버그의 가정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은 지속적으로 기억에 남아 훗날 성인이 된 긴즈버그의 시에 등장한다. 「미국에 대한 시」(“A Poem on America”)에서 이런 흔적을 느낄 수 있다.

그 골목들, 염색 작업들,
안개 자욱한 밀 스트리트,
술집들의 우울함,
긴 고속도로의 슬픔,
강가의 녹슨 쇠

주변을 기어오르는 흑인들,
실크 공장 뒤에
배수관으로 급수되는
숨겨져 있는 수영장;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모습들

삼 십년대의 이미지들,
신의 출현으로
화염으로 가득 찬
정치를 넘어서 변모된
불황과 계급의식.



The alleys, the dye works,
Mill Street in the smoke,
melancholy of the bars,
the sadness of long highways,
negroes climbing around
the rusted iron by the river,
the bathing pool hidden
behind the silk factory
fed by its drainage pipes;
all the pictures we carry in our mind

images of the thirties,
depression and class consciousness
transfigured above politics
filled with fire
with the appearance of God. (CP 72)

이 「미국에 대한 시」에 나타나는 분위기는 긴즈버그의 기억에 남아 있는 미국의 모습에서 비롯된다. 긴즈버그가 기억 속에서 불러낸 1930년대 미국의 분위기는 어딘지 모를 우울함이 깔려있다. 이러한 미국사회의 우울함은 긴즈버그의 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울부짖음과 그 밖의 시들』에 속한 시들이 가지는 우울함도 이러한 가정과 사회의 분위기가 어우러져 형성되었다. 긴즈버그의 우울함은 독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는데, 그것은 미국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 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시 속 우울함은 긴즈버그가 고백과 시인의 대열에 합류하도록 했다. 고백과 작가들이 가진 우울함은 각자의 개인사에서 시작되지만 미국사회라는 그들의 공통요소를 거치면서 공유된다.

그런데 긴즈버그에게는 다른 고백과 시인들과 구분되는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적극적인 사회참여이다. 긴즈버그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사회에 참여한 반면 대부분의 고백과 시인들은 시를 통한 자기 고백에 머무른다. 따라서 적극적 사회참여의 부재는 고백과 시인들의 한계로 작용하면서 다른 고백과 시인들과 긴즈버그를 구분 짓는 요소가 된다. 다른 고백과 시인들이 한계를 보이는 동안 긴즈버그는 마리아나의 합법화를 외치고, 월남전 파병에 반대하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했다. 긴즈버그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런 긴즈버그가 미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맞닥뜨린 문제는 언론의 자유였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집을 떠나 더욱 직접적으로 미국사회를 마주하게 되면서 긴즈버그의 의식은 확대된다. 긴즈버그는 자신을 노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문제점의 원인 중 하나로 미국사회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로인해 긴즈버그는 미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시작한다. 이런 경험 속에서 긴즈버그가 직접적으로 미국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된 계기는 『울부짖음과 그 밖의 시들』의 출판과정에서 겪었던 검열과

억압적인 미국사회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 해 온대로 긴즈버그는 미국의 정치에서 비롯된 사회분위기에 불만을 가졌고 그 부당함에 대해 늘 표출했었지만, 『울부짖음과 그 밖의 시들』의 논란을 통해 또 다른 미국사회의 억압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울부짖음」은 재판에서 승리했지만, 그것이 미국사회의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긴즈버그와, 「울부짖음」을 출판했던 City Light 서점에 대한 정부의 감시는 지속되었다.

미국은 주류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커피숍은 라이브 공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뉴욕 커피하우스 법(The New York Coffee House Law)을 1962년에 제정했다(SM 76). 그것은 미국사회가 여전히 경직되어 있음을 의미했으며, 커피숍 등 사람이 모일 수 있던 곳에서 활발히 시 낭송회나 예술모임을 개최했던 작가들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이 법을 제정한 미국정부의 목적은 언론통제였다. 이런 미국 정부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정부에 반하는 문화, 예술 활동을 금지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되어 갔다는 점이다. 긴즈버그는 「울부짖음」의 재판과정에서 몸소 경험했던 억압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느껴야 했다. 미국정부의 언론과 예술을 향한 탄압은 범위를 넓혀 나갔다.

1968년 11월 5일에 리처드 닉슨은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분위기가 그리 밝아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했다. 닉슨의 당선 후 에드가 후버는 전국의 FBI 사무실에, 관할 구역 내에서 출간되는 신좌익(New Left) 출판물들에 대한 세밀한 조사 자료를 만들 것을 요원들에게 지시하는 메모를 보냈다. 그리고 각 출판물에 관계된 직원과 인쇄업자, 광고주들의 정보를 수집할 것도 지시했다(McMillan 115). 그것은 히피문화가 번성하면서 확산되어 갔던 지하 언론(Underground Press)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정책의 영향은 지하언론에 가담하고 있던 긴즈버그와 그의 주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신문들을 발행하고 판매했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연방과 지방정부들의 표적이 되었다 (McMillian 6).

긴즈버그가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을 자주 나누던 에드 샌더스(Ed Sanders)가 운영하던 Peace Eye 서점을 경찰이 급습하고 책들을 압수한 것도 정부의 공작이었다. 판매할 책을 모두 압수당한 샌더스의 서점은 결국 파산했다. 또한 에드가 후버는 긴즈버그를 폭력적 성향을 띠고, 정부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인물로 지정한다는 공문서를 발행하기도 했다(Sanders 59). 윌리엄 포크너, 헤밍웨이, 존 스타인벡, 노먼 메일러 등 미국에게 비순응적이고 반체제적이었던 20세기 작가들 역시 미정보국의 감시 대상이었다(이홍필 79). 또한 이런 블랙리스트는 문화계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자신들에게 순응하지 않는 모든 영역에 속한 인물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결국 긴즈버그는 이러한 검열과 탄압에 반대하는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세금납부거부운동에 동참했다. 자신의 인지세가 미국 정부 세수에 들어가는 것 때문이었다(Morgan 444). 그 세금은 베트남 전쟁을 위해 사용되었다. 긴즈버그는 베트남 전쟁세를 반대하는 전국전쟁세반대조정위원회(National War Tax Resistance Coordinating Committee)에 동참했다. 이는 1969년에 발표한 「돈 없으면 전쟁도 없다」(“No Money, No War”)라는 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정부의 무질서는 베트남에서 몇 십 년이 넘게
벌어지고 있는 세계전쟁을 연장시킨다. 연방정부의
무질서는 미국 도시들을 극심한 혼돈상태로 몰아넣는다.

해외에서의 대량학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로 본국에서 생태적 재앙을 초래하는
전쟁세금 납부를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생명과 노동을 구하는 것이며 미국에서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는 가장 고상한 방법이다.

Government Anarchy prolongs illegal
planet war over decades in Viet-nam. Federal
Anarchy plunges U.S. cities into violent chaos.

Conscientious objection to war tax payment
subsidizing mass murder abroad and
consequent ecological disaster at home will
save lives & labor and is the gentlest
way of political revolution in America. (WT 95)

이 시에서 드러나듯 긴즈버그는 자신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고 있다. 미국 정치 논리 때문에 베트남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미국 국민들에게도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항의를 표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배제시키고자 긴즈버그는 자신의 저작권 수입을 포기하였음을 밝힌다. 아울러 그러한 방법이 미국 정치에 혁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평화로운 방법이라는 자신의 생각도 밝힌다. 시를 통한 저항의식의 표현은 소로(Henry David Thoreau)의 저항행위와 공통점이 있다. 미국 정부가 시행한 흑인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항의하기 위한 인두세 납부 거부로 감옥에 갇혔던 경험의 성찰을 통해 저술한 소로의 『시민의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의 다음 부분은 위에서 인용한 긴즈버그의 「돈 없으면 전쟁도 없다」와 같이 세금납부거부에서 시작될 수 있는 평화로운 정치

혁명에 대해 이야기 한다.

만약 올해 1천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세금을 내서 주 정부로 하여금 폭력을 휘두르고 선량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만큼이나 폭력적이고 유혈적인 처사는 아닐 것이다. 만일 평화적인 혁명이란 것이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평화적인 혁명일 것이다. (소로 43)

소로가 자신의 글을 통해 명확한 의지를 보였던 것처럼 긴즈버그 역시 자신의 시를 통해 자신이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자신의 저항행위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긴즈버그와 소로는 실제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시민불복종을 행동으로 실천했다.

소로와 긴즈버그가 글을 통해 저항의식을 내비친 것은 비폭력 저항노선을 향한 노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비폭력주의는 지젝의 노선과도 일치된다. 지젝은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민불복종과 같은 형태의 폭력과 잔혹한 물리적 폭력이 구분되어야한다”고 말한다. “자신들의 권리를 구현하고 사회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식으로써 권력을 무시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주 확실한 무기이며, 점점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지젝 175)임을 지젝은 강조한다. 즉, 소로와 긴즈버그는 지젝이 “거리로 나가서 권력을 무시하는 형태”로 정의내리는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지젝 167)을 행사했다.

긴즈버그는 “미국의 세금이 예술가들을 죽이는데 사용되고 있다 (Taxpayer's money is being used up to put down these artists)!”(SM 84)라고 직접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긴즈버그는 그런 돈이 뉴욕의 아방가르드를 죽였고, 아방가르드 영화나 연극 제작에 지원되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주(State) 간의 분쟁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SM 84). 긴

즈버그는 자신의 시 「펜타곤 푸닥거리」(“Pentagon Exorcism”)를 통해 미국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누가 펜타곤에서 나의 신체를 대신하는가? 누가 내 영혼의
수백만을 전쟁 물자를 위해 사용하는가? 누가
폭탄 포효 속에서 마지못해 기뻐 날뛰는 세금의 대부분을
징수하는가? 세뇌! 마음의 공포! 주지사의 언어!
“군-산-복합체!” 대통령의 언어!
신체의 고통을 만드는 전기 네트워크에서 지껄이는 기업의
목소리들, 화학적 기능장애, 중국의 장대한 눈
군사 압제 영화 다이어과노이드에 육체의 심취
히스테리—나의 세금을 내라고? 아니 웨스트모어랜드는
악마가 되기를 원한다, 다른 이들은 지속되는 백악관 경비 속에서
수 만 명을 상처 입히기를 지속하고 흑백의
숲 마을에서 소작농들이 불타는 TV속 각각의 세상에
비치는 이미지들에 채널을 고정시키는 그의 권력에
희생된다—마법으로 나 자신보다 덜 보여 지는
정보요원은 물질-과학자들의 록펠러
은행 전화 전쟁 투자 고리대금업체에 영향을 미친다
맥도넬 더글라스에서 제너럴 다이내믹스까지
최루탄과 함께 라디오 귀로 감시되는
스모그 낀 금속 소음 가득한 나무 없는 도시들을 제트기를 타고
넘나드는 전쟁 투자 고리대금기관의 중역들, 사업가!
당신의 찬란한 수억 원을 이 고난에 사용하라!
펜타곤이여 행성 -수면에서 깨어나라! 아포카타스타시스!

Who represents my body in Pentagon? Who spends
my spirits's billions for war manufacture? Who
levies the majority to exult unwilling in Bomb
Roar? "Brainwash!" Mind-fear! Governor's language!

“Military-Industrial-Complex!” President’s language!
 Corporate voices jabber on electric networks building
 body-pain, chemical ataxia, physical slavery
 to diaphanoid Chinese Cosmic-eye Military Tyranny
 movie hysteria—Pay my taxes? No Westmoreland wants
 to be Devil, others die for his General Power
 sustaining hurt millions in house security
 tuning to images on TV’s separate universe where
 peasant manhoods burn in black & white forest
 villages—represented less than myself by magic
 Intelligence influence matter-scientists’ Rockefeller
 bank telephone war investment Usury Agency
 executives jetting from *McDonnell Douglas* to *General Dynamics*
 over smog-shrouded metal-noised treeless cities
 patrolled by radio ear with tear gas, businessman!
 Go spend your bright billions for this suffering!
 Pentagon wake from planet-sleep! Apokatastasis! (CP 491)

긴즈버그는 이 시에서 자신을 대신하는 정치인들이 펜타곤에서 수많은 돈을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전쟁물자로 베트남 주둔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는 베트남 주민들을 마을에서 학살하는 전쟁을 벌인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은 전쟁의 모습을 TV속 영상으로 그 접한다. 또한 미국의 세금은 맥도넬 더글라스나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의 군수산업체로 흘러들어간다. 이 돈을 투자받기 위해 전쟁관련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고리대금업체의 간부들은 이들 군수산업체를 왔다 갔다 하며 사업을 한다.

긴즈버그는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 주문을 외우며 펜타곤이 몽롱함에서 깨어나라는 푸닥거리를 한다. 긴즈버그는 펜타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최루탄이

난무하는 전쟁 분위기 속에 놓여있는 어수선한 도시들을 위해 돈을 사용하라고 경고한다. 긴즈버그는 자신을 포함한 미국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미국 내의 혼란을 진정시키는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전쟁을 지속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이 시를 통해 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전달한다. 시를 통해 긴즈버그가 이런 내용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잘못된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시민연대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에 제동을 걸기위한 긴즈버그의 이러한 시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젝은 “국가란 그 작동이 위협받거나 기능하고 있다고 인식될 때에만 제 구실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지젝 176)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권력을 무시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할 때, 사람들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될 것이고 국가는 변화하기 시작 한다”(지젝 176)는 것이다. 지젝의 의견에 비추어 보면 긴즈버그의 시를 통한 사회변혁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 혁명이다. 하지만, 긴즈버그의 이런 시도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세금납부를 거부하며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그런 행동은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지만, 결국 긴즈버그는 정부의 보복을 당한다. 그 해 여름 국세청은 대략 15,000달러의 세금을 거부한 긴즈버그에게 소송을 걸었다. 그것은 긴즈버그가 베트남 전쟁세를 거부한 결과였다. 소로의 『시민의 불복종』에서 큰 영향을 받은 간디(Mahatma Gandhi)가 시도했던 납세거부운동이 성공했던 이유를,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최소한의 인간 존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지젝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 정부가 긴즈버그에게 한 행동에는 최소한의 인간 존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지젝은 “인간의 존엄성을 대상으로 하는 혁명의 방식은 상대가 최소한의 윤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지젝 181-82)고 정의한다. 최소한의 윤리가 없는 미국정부에 대항했던 긴즈버그는 실패했다.

그런 상황에서 긴즈버그와 농장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피터 오로브스키(Peter Orlovsky)와 허버트 헝키(Herbert Huncke)의 마약사용은 더욱

빈번해졌다. 긴즈버그는 그들의 마약사용이 농장에 문제를 가져오지 않을
 지를 항상 걱정했다. 결국 경찰이 농장을 급습했고, 형키의 마약이 발견되
 었다(Morgan 461-62). 긴즈버그는 체포되지 않았지만, 경찰의 급습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미국 정부의 공작은 긴즈버그의 주변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래서 다음에 인용되는 「교차하는 국민」(“Crossing
 Nation”)에서는 정부에 반감을 산 인물들이 체포되는 모습이 그려진다.

제리 루빈이 체포되었다! 수감되었다,

꼬리뼈가 부러졌다—

활동을 못하는 리어리—“공공의 적 . . .

다정한 시기의 사람들 . . . 치기어린

심판 . . . 정신검사 . . .”

즉, 닥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원 또는 교도소

부랑자 총기 혐의, 7천 달러에 관여한 르로이

변호사 비용, 몇 해 간의 협상—

잠깐 동안의 주요뉴스 스포크 유죄, 조안 바에즈의

남편 데이비드 헤리스는 감옥으로

달린은 정치에 침묵한다, 그리고 안전하다—

Jerry Rubin arrested! Beaten, jailed,

coccyx broken—

Leary out of action—“a public menace . . .

persons of tender years . . . immature

judgment . . . psychiatric examination . . .”

I.e. Shut up or Else Loonybin or Slam

LeRoi on bum gun rap, \$7,000

lawyer fees, years' negotiations—

SPOCK GUILTY headlined temporary, Joan Baez'
paramour husband Dave Harris to Gaol
Dylan silent on politics, & safe— (CP 507)

「교차하는 국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정부에 반하는 행동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인물들이다. 이들을 체포하여 재판을 벌인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미국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였다. 긴즈버그가 더 화났던 것은 르로이 존스(LeRoi Jones)의 체포과정에 미국 정부의 공작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긴즈버그는 존스의 재판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존스는 인종차별반대 집회를 주도한 것과 체포 당시 총기 2정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존스의 총기소지를 긴즈버그는 정부의 공작으로 보았다. 긴즈버그에게 마약으로 공작하여 혐의를 씌워 체포하려던 것과 유사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Morgan 447).

위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자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그것이 그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미국 정부의 정책의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처벌받았다. 심지어 미국은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 처벌했다. 미국사회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은 대중음악가 밥 딜런처럼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런 미국사회의 분위기가 비정상적으로 느껴진 긴즈버그의 걱정은 미국사회의 몰락이었다. 「교차하는 국민」의 마지막에서 긴즈버그는 몰락하고 있는 미국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내비친다.

만약 미국이 추락하면 나는 무엇을 잃어야 하는가?
나의 몸? 나의 목? 나의 인격?

What do I have to lose if America falls?

my body? my neck? my personality? (CP 508)

시에서 드러나는 긴즈버그의 의식에서 미국사회에 대한 불안함이 느껴진다. 「교차하는 국민」이 수록되어있는 1973년에 출간한 시집 『미국의 몰락』(The Fall of America)은 이런 긴즈버그의 불안에서 만들어졌다. 긴즈버그는 『미국의 몰락』을 통해서 미국국민들이 현실을 깨닫고 함께 더 나은 미국을 만들고자 하는 계기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랐다.

「울부짖음」에서 나타났던 긴즈버그의 불안함은 시간이 흘러 더욱 직접적으로 발전했다. 1930년대에 시작된 미국시민으로서의 불안함은 1970년대에 이르러 더욱 깊고 구체적인 것이 되었다. 긴즈버그를 비롯해 국가의 불합리에 저항하던 이들을 숨 막히게 하던 닉슨 정부는 1972년에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결국 종말을 맞는다. 재선을 위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었던 민주당 본부에 도청을 시도하다 발각된 이 정치적 사건에 미국시민들은 깊이 실망했다. 도청 사건으로 인해 닉슨 정부의 비열한 정치공작들은 줄줄이 발각되고 폭로 되었다. 그래서 긴즈버그는 닉슨 대통령의 몰락이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 선동을 통해 국민들을 어떻게 세뇌시켜왔는지를 국민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았다. 하지만 닉슨의 사퇴로 미국사회에 찾아올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긴즈버그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70년대 미국에 불어 닥친 불경기가 미국사회에 영향을 끼쳐 레이건 정부에 이르러 보수화가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긴즈버그에게 미국사회의 어두움은 지속되었다. 더욱 보수적이 된 레이건 대통령 정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긴즈버그 같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속되는 반문화 제재 정책으로 긴즈버그는 또다시 피해를 입는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의 새로운 정책

은 방송에 대한 검열을 더욱 강화했다. 출판된 긴즈버그의 시가 검열 없이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라디오에서 방송되지 못했다. 긴즈버그의 작품뿐만 아니라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음란하다고 판단된 모든 것이 방송되지 못했다. 긴즈버그는 「울부짖음」 재판의 경험을 떠올리며 미국사회가 다시 1950년대로 회귀된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긴즈버그는 인터뷰 등을 통해 기회가 될 때마다 미국의 검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Morgan 602).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목격한 톰킨스 스퀘어 공원(Tompkins Square Park)의 모습은 긴즈버그에게 안타까움을 준다. 정부의 검열과 감시를 받는 긴즈버그 자신의 모습과, 눈앞에 펼쳐진 공원에 있는 노숙자들의 풍경이 겹쳐지면서 긴즈버그는 혼란을 느낀다. 긴즈버그는 「미국 문서보관함 속 숫자들(처형을 기다리는 죽음)」(“Numbers in U.S. File Cabinet(Death Waits to Be Executed)”)에 그 내용을 기록했다.

3,600,000명으로 추정된 미국의 거지들
300,000명 정신질환 환자들이 길을 뒤덮었던 1970년대-1980년대
300명의 홈리스들이 거리에서 잠을 잔 뉴욕의 톰킨스 공원 1989년 6월 29일

3,600,000 estimated American Homeless
300,000 mental patients dumped on streets 1970s-1980s
300 homeless slept outdoors Tompkins Park N.Y.C. July 29, 1989 (CP 982)

긴즈버그는 노숙자들과 그들을 공원에서 쫓아내려는 경찰 사이의 대립 상황에 관여한다. 자신이 목격한 미국사회의 모습은 긴즈버그에게 혼란스러움으로 다가온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몰려 있었지만 미국의 정치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예술가들을 탄압하고, 다른 나라에

서 쿠데타와 전쟁을 벌이고, 마약거래에 관여했다. 정치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미국 정부는 자신의 국민을 돌보지 않았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국민을 찾았다.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긴즈버그가 다음에 인용되는 시 「뉴트 깅그리치가 “맥고버닉 반문화”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다」(“Newt Gingrich Declares War on “McGovernik Counterculture””)를 1995년에 쓸 때에도 반문화에 대한 분위기는 여전했다. 미국의 분위기는 개선될 여지는커녕 지속되는 탄압 속에 놓여 있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반문화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긴즈버그는 반문화에 대한 전쟁을 비꼬는 시를 쓴다.

그건 한 귀에 귀걸이 한 개 이상 걸친 모든 사내아이에 대한 전쟁을
의미하는 거니?
배꼽 피어싱을 한 모든 여자애들에 대한 전쟁이나? 코에 피어싱 한 건 어때?
오른쪽 콧구멍에 다이아 단 거 말이야?
그건 데드 콘서트에 LSD에 취한 사복형사가 더 많아진다는 말이야?
MTV는 어때—더 이상 마이클 잭슨, 딜런의 지하의 향수에 잠긴 블루스는
없는 거야? 요코와 존의 평화에게 기회를 줘시다도 더 이상은 없어
핑크, X 세대, 보이드오이드, 슬랙커스, 그런지에 대한 법이
생길건가?
블루스, 재즈, 비밥, 락앤롤은? 어디가 반문화인데?
엘비스 골반은 어때? 입 다문 소닉 유스, 너바나에서 제거된 코베인의
포효는?
대학 캠퍼스들의 마리화나, 공화당한테 죽을 때까지 짓밟힌 버섯들은 더 이상
없는 건가?
흑인들은 어때? 그거 엄청난 반문화잖아, 그리고
황화(黃禍)는 어때, 중국식당은? 뉴에이지풍 요리는?
일본 초밥은 너무 불교스럽지 않은가?

Does that mean war on every boy with more than one earring on the
 same ear?
 against every girl with a belly button ring? What about nose piercing?
 a diamond in right nostril?
 Does that mean more plainclothesmen high on LSD at Dead concerts?
 What about MTV—no more Michael Jackson, no Dylan Subterranean
 Homesick Blues? Yoko & John no more Give Peace a Chance
 Will there be laws against Punk, Generation X, the Voidoids, Slackers,
 Grunge?
 Blues, Jazz, Bebop, Rocknroll? Where did it get countercultural?
 What about Elvis' Pelvis? Sonic Youth dumbed, Cobain's screams
 banished form Nirvana?
 No more grass on college campuses, Mushrooms stomped to death by
 the Elephant Party?
 What about African-Americans? That's a terrific Counterculture, &
 what about the Yellow Peril, Chinese Restaurants? New Age
 Cooking? Is Japanese Sushi too much Zen? (CP 1082)

1995년도 미국의 문화현상들을 예시로 들며 긴즈버그는 이들이 반문화에 속하는 것인지를 묻는다. 긴즈버그가 던지는 질문들은 반대로 미국의 모든 문화를 반문화로 정의하려는 기세를 보이는 미국 정치인들을 조롱한다. 흑인이나 중국, 일본 등의 유색인종들도 반문화로 지정할거냐고 질문하는 긴즈버그의 시 구절은 허탈한 웃음을 짓게 만든다. 뉴트 깡리치(Newt Gingrich)와 제시 헬름스(Jesse Helms) 같은 정치인들이 반문화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에서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긴즈버그는 이를 스탈린이나 텔레비전 전도사들이 했던 것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컨트롤 하려는 행위로 느꼈다(Morgan 636).

그런데 이런 긴즈버그의 비판은 미국정부나 특정 정치인들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긴즈버그는 미국인들이 미국 정치인들의 부도덕함을 방관했다는 생각 또한 가졌다. 긴즈버그는 미국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태도가 미국 정치인들이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는데 결국은 일조했다고 생각했다. 긴즈버그의 이런 관점은 ‘우리’라는 좌파적 관점에서 해석 될 수도 있다. 긴즈버그는 이런 생각을 「대중을 위한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비친다.

그리고 미국 대중도 계집애 같다

그들이 그들 주머니 속에서 모든 것을 국방부에 주지 않는다면

두려워하는

펜타곤의 경호원들과 CIA의 깡패들이

국회와 대법원을 두들겨 팬다

그리고 서부 구역 전체를 장악한다.

And the American public's sissy too

Scared if they don't give everything in their pockets to Defense

Department

the muscle men at the Pentagon and tough guys at CIA'll

beat up Congress and Supreme Court

and take over the whole Western Block. (CP 869)

아무 생각 없이 정부에서 시킨 대로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는 미국시민들의 방관 역시도 결국에는 잘못된 미국의 정치행태에 동참하는 것이었다. 그 세금은 미국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주었고 비민주적 정책을 펼치는데 사용되었다. 그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긴즈버그는 시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는 미국 시민들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을 비난으로만 볼 수는 없

다. 긴즈버그는 시를 통해 “다리”(지책 100)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시를 읽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 우리라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책은 “오늘과 같은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전문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를 그저 표면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지책 99)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위해 “이러한 사안들에 관심을 갖고 의식적으로 개입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자신의 일에 치여 그저 타인의 의견을 따르는 대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지책 100)을 강조한다.

긴즈버그가 「새로운 민주국가 소망 목록」(“New Democracy Wish List”)과 같은 시를 쓸 수 있던 것은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려는 의지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시는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Long Island Newsday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시를 쓰면서 긴즈버그는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그것을 종합했다(CP 1163). 나중에 백악관으로 전달된 이 시는 더 나은 미국사회에 대한 염원이 담겨있다.

마약 중독 문제를 비 범죄화 하시오, 의사들이 중독을 치료가능하거나
치료법이 없어도 관리할 수 있소. 법정과 감옥을 혼잡하게 하는
마약-중독된 정치범들에 대한 막대한 지출을
줄이시오, 마약 거래를 치료하십시오.

마리화나를 비 범죄화 하시오, 그것의 손실은 대수롭지 않아요; 대마 풀을
도산하는 가족농장을 위해 알려지지 않은 개인의 소규모 환급

작물로써 확보하시오, 삼베산업을 장려하시오.

환각제들을 민영화하고 의학 교육의 성직자 같은 전문직에게 맡기시오.

LSD에 대한 연구개발을 군사가 독점하도록 하는 것을
중지하시오.

Decriminalize addictive drug problem, doctors can cure addiction or
provide maintenance if no cure. Reduce mass-million expense
on narcotics-addicted political prisoners overcrowding courts
& jails, Medicalize drug trade.

Decriminalize marijuana, its disadvantage are minor; reserve hemp
grass as unadvertised private small cash crop for failing
family farms, encourage hemp fabric industries.

Privatize & entrust psychedelics to medical educational priestly
professions, End Military monopoly on LSD research and
development. (CP 1064)

“진보’는 XX세기에 끝났다(‘Progress’ ended in XX century).”로 시작하는 이 시에서 긴즈버그는 앞으로의 전망과 침체된 미국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치적 사안들을 전한다. 그리고 여전히 마약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한다. 마리화나와 마약 중독문제를 비범죄화 하고 LSD에 관한 문제를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시의 내용은 1960년대부터 긴즈버그가 주장했던 내용이 미국정치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미국 정부는 긴즈버그가 「새로운 민주국가 소망 목록」을 만든 1995년도에도 여전히 마약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시인이 이어지는 내용에서 군사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군사문제에 대한 정책 역시도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살바도르, 과테말라, 그 밖에 주둔하는 미군 암살단의 보조금을 삭감하시오.

우리는 자이르,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수단, 앙골라, 아이티, 이란, 이라크, 살바도르의 독재자들을 지원했고, 우리는 책임이 있소:
그것을 인정한 다음 방법을 생각해 내시오,

대 파괴자 정보활동 습격, 정부의 마약거래, 케네디/왕 암살들,

이란 콘트라 사건, 파나마 속임수, 바티칸, Hand & Lavoro 은행 폭력행위, 등등에 대한 CIA와 FBI 그리고 NSA의 기록 보관소를 공개하시오. 부시와 노리예가 관계와 다른 CIA 고객-요원 스캔들들도 포함해서.

Purge U.S. military death squad subsidies in Salvador, Guatemala, etc.

We backed up dictators in Zaire, Somalia, Liberia, Sudan, Angola, Haiti, Iran, Iraq, Salvador, we're responsible: admit it then figure ways out.

Open CIA & FBI & NSA archives on Cointelpro raids, Government drug dealing, Kennedy/King assassinations, Iranian Contragate, Panama Deception, Vatican, Hand & Lavoro Bank thuggery, etc. including Bush-Noriega relations and other CIA client-agent scandals. (CP 1065)

미국 암살단의 보조금을 삭감하라고 말하면서 늘어놓는 국가 이름들에서 여전히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을 할 뿐 아니라, 그 범위를 더욱 넓혀 놓았음을 알 수 있다. CIA나 FBI의 비밀기록들을 공개하라는 시인의 요구에서는 미국 정부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많은 일들에 대해 여전히 함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정부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을 비밀로 해두고 반성의 기색

없이 더욱 더 폭넓게 활동한다.

미국 노동 운동, 원주민 혹은 히스패닉과 게이 소수집단 지도자들을-

방해하기 위한 조직적 범죄; 그리고 각각의 미국 대통령들과 국회를
반세기동안 협박한 제이 에드가 후버-스펠먼 추기경-로이 콘-조 맥카시-
알코올중독 동성애자 음모에 대한 모든 기밀문서를 공개하십시오.

새천년에는 정부 비밀경찰(DEA CIA FBI NSA 등등.)이 우리를 추적하는 것을
그만하도록 하시오.

Open all secret files on J. Edgar Hoover-Cardinal Spellman-Roy Cohn-
joe McCarthy alcoholic Closet-Queen Conspiracy with Organized
Crime to sabotage the U.S. Labor Movement, Native African-
American Hispanic & Gay minority leaderships; and blackmail
U.S. Presidents Congress each other for half century.

Get Government Secret Police (DEA CIA FBI NSA etc.) off our backs by
the next millennium. (CP 1065)

긴즈버그의 요구는 미국이 자행했던 인권침해에 대한 증거들에도 적용된다. 미국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만들어낸 음모에 대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여전히 NSA, CIA, FBI 등의 첩보기관을 통해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다. 긴즈버그는 미국정부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털어놓고 새천년에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기를 이 시를 통해 바란다. 긴즈버그가 여전히 시를 통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정부의 정치행태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평생 동안 긴즈버그가 주장했던 미국의 잘못된 정치는 긴즈버그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 순간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긴즈버그가 꿈꾸었던 미국의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는 실

현되지 않았다.

검열에서 비롯되는 미국 정부의 언론 통제, 정치공작 등이 미국 민주주의의 실현을 막았다. 긴즈버그가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작품 활동을 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였다. 미국의 정치행태에 대항하는 긴즈버그의 자세가 마지막까지도 변함이 없었던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긴즈버그는 꾸준히 자신의 시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피력한다. 이런 긴즈버그의 노력은 “사회-정치적 공간 안으로의 배제된 자들의 침입이 곧 민주주의”(지책 113)라고 한 지책의 정의에 대입해 보면 민주주의를 향한 올바른 행동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Ⅲ. 마약 그리고 감시와 처벌

최근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결국 합법화를 택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적어도 한 가지 의미를 유추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물질로 여겨져 온 마리화나의 해악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은 지금까지 마리화나에 대한 선입견이 잘못 되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음성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던 사람이 많았고 그들이 합법화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어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인들에 의해 그 해악이 충분히 검증된 아편 같은 마약을 합법화하자는 움직임은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로 삼으면 타당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마리화나가 사회적으로 금지물질이 되어왔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 사회현상은 복합적 요소들이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그것을 단적으로 정의내리기가 힘들다. 그러나 어떤 사회현상이 생겨나기까지 영향을 끼친 요소들을 추적해서 살펴보면 그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진다. 마리화나의 경우도 왜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금지물질 중 하나가 되어왔고 범죄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여러 방면에서 접근해서 살펴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하다. 이 방법을 적용시켜 본다면 마리화나가 반사회적 이미지를 가지는 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미국의 경우 마리화나가 반사회적 이미지를 가지는데 정치인들의 영향이 컸다는 점이다.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수가 늘어가는 미국에

서 마리화나가 불법물질로 규정되는 데에는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긴즈버그의 마약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생겨났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마리화나를 비롯한 마약으로 국민들을 감시하고 처벌했기 때문에 긴즈버그는 마약에 대한 정부정책의 잘못된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국은 마약 전반에 걸쳐 정부 차원의 개입을 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은 한 가지 목적으로 귀결된다. 긴즈버그의 결론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미국 정치인들의 이익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1914년에 해리슨 법(Harrison Act)이라는 것을 제정했다. 기본적으로 해리슨 법은 아편과 코카인 제품의 생산, 수입, 유통에 대한 규제와 세금 책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해리슨 법은 마약의 공급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마약중독자들이 병원이나 지정된 상점에서 마약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AV 40). 당시에 아편과 코카인은 주로 진통제로 사용되었지만, 중독자들은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많았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은 긍정적인 것이라 할 수도 있었다. 남용을 방지하여 중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사용자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는 사회 분위기와 마약사용자들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효과가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1937년에 제정된 마리화나 세금 법(Marijuana Tax Act)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미국은 1930년대에 이르러 의료용 이외의 마리화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가 마리화나 규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남궁현 327-28). 미국의 정치인들은 마리화나를 국민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기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 미국의 마리화나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해리 앤슬링어(Harry Anslinger)이다. 앤슬링어

는 1930년에 신설된 미국 재무부 산하 연방 마약국(The Federal Bureau of Narcotics)의 초대 국장에 임명되어, 31대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부터 35대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에 이르는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연방 마약국을 이끌었다.

앤슬링어는 새롭고 더욱 강력한 마리화나 규제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긴즈버그는 마약 관련법보다 그러한 법들을 집행하는 연방 마약국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긴즈버그는 마약과 관련한 인터뷰들을 하면서, 애초에 마리화나 관련법 자체가 정부의 세수입 확대를 위해 재정되었기 때문에 마리화나 관련법이 재무부의 영향력 아래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앤슬링어가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짐에 따라 더욱 많은 마약들이 연방 마약국의 지배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긴즈버그는 앤슬링어가 마약 중독자들을 의사로부터 멀어지고 경찰의 손안에 자리하도록 만든 느낌을 가진다고 했다(Morgan 322-23). 마리화나는 흔히 살인 충동을 일으키고, 폭행, 강간, 강도, 살인이 높은 확률로 마리화나의 사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앤슬링어는 주장했다. 또한, 특히 재즈 음악가들을 위시한 마리화나 상용자들은 결국에 살인이나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거나 정신이상자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멕시코 인이나 흑인 상용자들이 국가의 안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McMillian 5). 앤슬링어의 사상과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주장이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앤슬링어는 오로지 자신의 신념에만 기대어 마약의 해악에 대해 주장했다. 더불어 앤슬링어가 마약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으로 공표한 것은 흑인이나 그 외 소수민족이었다. 백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앤슬링어는 마약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백인 이외의 인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미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의 한 사례가 된다. 앤슬링어의 주장과 정책들이 인종차별의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 큰 역할은 했음

은 분명하다.

긴즈버그가 보기에 는 오히려 앤슬링어가 만들어놓은 상황이 많은 마약 사용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긴즈버그가 볼 때 마약 중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의사였지 경찰이 아니었다. 긴즈버그가 앤슬링어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을 비난한 것은 그런 정책이 수많은 범죄자를 양산할 뿐이기 때문이었다. 앤슬링어는 자신의 연방 마약국을 컨트롤하면서 마약에 관한 정보를 유포하는 공식문서에도 관여했다. 긴즈버그가 느끼기에 그런 정보를 다루는 것은 전문의들의 권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만, 마약 문제를 악화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앤슬링어는 마리화나가 헤로인보다 더욱 포악하고 파괴적이며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공표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마리화나에 대한 의학적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것과는 정반대되는 사실이었다.

앤슬링어는 마약에 대한 허구를 조작했다. 앤슬링어가 만들어 놓은 허구는 마약을 하는 부랑자나 백인 이외의 종족을 잠재적 범죄자로, 백인 계층을 잠재적 피해자로 구분하는 잣대로서 기능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잣대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말하는 “규율장치”가 된다. 규율장치를 통해 “권력은 끊임없는 위계질서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행사되고, 개인은 줄곧 기록되고 검사되면서” 계층적으로 구별된다(푸코 306). 앤슬링어가 만든 규율장치는 “포함된 자’로부터 ‘배제된 자’를 분리하는”(지젝 253) 기능을 하며 미국식 아파트헤이트를 만들어낸다. 앤슬링어는 마약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고 국가권력을 남용하고자 했다. 긴즈버그는 마약을 이용한 탄압이 앤슬링어와 연방 마약국의 권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정부기관의 행태는 다른 모든 정부부처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관료정치였다. 마약에 대한 긴즈버그의 노선이 정해지고 정부정책을 비난했던 것은 이런 미국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치에서 시작된다. 긴즈버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미국의 잘못된 마약정책에 대해 이야기 했다.

어느 시대, 국가를 막론하고 마약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밝힐 만큼 떳떳한 일이 아니다.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자신이 범죄자임을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굳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긴즈버그의 경우는 자신이 마리화나(Marijuana)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가 하면, 시 창작에 있어 하나의 주제로써 사용하기도 했다. 긴즈버그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앞서 이야기 한 대로 마약을 감시와 처벌의 도구로 삼는 미국정치에 대한 반발심이었다. 더구나 마약이라는 물질은 긴즈버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도 했다. 긴즈버그는 환각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긴즈버그도 주로 즉흥적인 즐거움이나 사교를 위해 마약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환각으로 인한 경험을 시에 옮기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더불어, 자신이 직접 마약을 혼합하여 효과를 실험하기도 하였다. 다음에 인용하는 「에테르」(“Aether”)와 같은 시에서 그러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네 번 들이마심 그리고 나는 몽롱하다,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왼손에는 흰색 솜,
 원형(原型)은 타락한다,
 입 속에서 치과 의자에서의
 피 맛이
 음악, 영원의 시끄러운 방귀소리—
차가운 어둠속에서
 낙서하는 안경 쓴 올빼미—
 줄곧 내 고막 속에는
 아래의 노면전차 소리

거리의 툼툼거리고— 빠걱거리는 택시 웬더—
웃음소리와 벽에서 메아리치는
권총의 총성—
네온의 경련 빛 샘—두개골 속에서 무수히
돌진하는 것들의 목소리

인사불성 진 찰나 속에서
내 귀에 부딪혀 울리는
귀뚜라미가 만들어 낸 모든
울음소리들,—
흘러내릴 눈 속의 눈물,—
알 수 없는 것의 공포—

아직 그리스도가 신이었는지 또는 악마였는지
모른다—
부처가 더욱 위안을 준다.

하지만 실험은 계속되어야 한다!
모든 가능한 존재물의 조합—

4 Sniffs & I'm High,
Underwear in bed,
white cotton in left hand,
archetype degenerate,
bloody taste in my mouth
of Dentist Chair
music, Loud Farts of Eternity—
an owl with eyeglasses scribbling in the
cold darkness—
All the time the sound in my eardrums
of trolleycars below

taxi fender cough—creak of streets—
 Laughter & pistol shots echoing
 at all walls—
 tic leaks of neon—the voice of Myriad
 rushers of the Brainpan
 all the chirps the crickets have created
 ringing against my ears in the
 instant before unconsciousness
 before,—
 the teardrop in the eye to come,—
 the Fear of the Unknown—
 One does not yet know whether Christ was
 God or the Devil—
 Buddha is more reassuring.
 Yet the experiments must continue!
 Every possible combination of Being— (CP 250)

페루(Peru)의 리마(Lima)에서 쓴 이 시는 제목부터 환각제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긴즈버그는 보통 수술 시에 사용되었던 에테르라는 용액을 환각을 위해 사용했다. 4번의 흡입 뒤에 환각에 다다랐음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이 시는 긴즈버그가 환각제에 취한 당시의 느낌과 생각들을 보여 준다. 에테르 흡입을 위해 사용했던 흰색 솜을 왼손에 든 채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긴즈버그는 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느낀다. 환각 속 긴즈버그의 머릿속에는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 리마의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음들도 긴즈버그의 귀를 때린다. 약에 취해 나른한 상황이 긴즈버그에게 안정감만을 준다고 볼 수는 없

는데, 그러한 심리는 “알 수 없는 것의 두려움(the Fear of the Unknown)”이라는 표현에서 유추 가능하다. 그럼에도 인용된 부분의 마지막에서 긴즈버그는 마약을 조합하여 실험을 계속 할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환각에 대한 긴즈버그의 태도는 우연히 형성된다. 긴즈버그는 자신의 한 에세이 「시인 앨런 긴즈버그의 성명서, 사법 위원회의 특별 분과위원회 전 뉴욕시 청문회—미국 상원」(“Statement of Allen Ginsberg, Poet, New York City Hearings Before a Special Subcommittee of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U.S. Senate”)을 통해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22살이었을 때 나는 마약 없이 환영의 경험, 혹은 심미적 경험이라고 불리는 중대한 경험을 했다. 그것은 나의 삶을 깊어지게 했다”(DP 67)라며 긴즈버그는 자신이 우연히 환영을 경험했다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 느낌에 머무르지 않고 꾸준히 자신에게 영향을 끼쳤음을 고백했다. 그 현상은 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어났고, 심지어 자신의 삶을 깊어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긴즈버그는 마약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가 이야기한대로, 환영 같은 것을 경험한 이후, 나는 인디언 선인장인 페요테를, 가족이 집에 있던, 패터슨에 있는 나의 집에서 섭취했다. 식구들은 내가 머물러 있던 마음속의 변화를 눈치 채지 못했다. 나는 새로운 시각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가족 간의 언쟁은 엄청나게 슬프게 다가왔다. 그것은 내가 나의 그 기묘한 경험의 깊은 곳에서 가족들을 보고 있었을 때, 마치 가족들이 길을 잃었거나, 격리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 나는 내가 가족들이 기쁘도록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고, 우리를 더욱 친밀하도록 이끈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그날의 대부분을 뒷마당에서 만개한 벚나무를 보거나 변화된 나의 시야에 들어오는 푸른 하늘을 관찰한 것을 적어 내려가며 보냈다. (DP 69)

긴즈버그는 자신이 우연히 경험한 환영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페요테(Peyote)라는 인디언 선인장에서 추출되는 마약을 섭취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자신이 스스로 주입한 마약이 가져다 준 환각은 다시 한 번 그를 환영 속에 데려다 놓는다. 그리고 그것은 긴즈버그의 감정을 이완시킨다. 평소라면 화가 났을 법한, 가족 간의 언쟁이 애처로움으로 다가온 것은 바로 그 환영에서 비롯된다. 긴즈버그는 가족들을 진정시키려고 뒷마당에 앉아 자연을 관찰한다. 그리고 그 감정을 종이에 써 내려갔다. 그 날 느낀 시인의 감정이 좋은 것이었는지 나쁜 것이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이 시 창작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확실하다. 환영은 긴즈버그에게 새로운 감각을 선사했다. 우연한 한 번은 자연발생적인 것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마약을 통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페요테를 다시 몇 번 했다.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나에게 메스껍고도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페요테를 할 때면 평상시 보다 더욱 크고, 더욱 디테일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전율이 항상 있다. 그 세상은 엘런 긴즈버그로 불리는 내가 뇌, 창자, 그리고 신비한 감각이 되는 감정을 발견하는 곳이다. 또한 외로운 마음, 국가와 이웃 국가간의 대학살을 가져오는, 해결되지 못한 갈등과 두려움이 있는 전쟁 상황의 세계, 경찰국가 그리고 또한 전쟁에 관여하는 나의 국가가 있는 세상이다.

1955년에 나는 이런 것을 묘사하는, 이제는 많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시를 만들었다. 「울부짖음」이라는 시의 중심 부분은 페요테에 의해서 내가 변해버린, 혹은 확대된 자의식의 상태에 있을 때 쓰여 졌다. (DP 70)

긴즈버그는 자신이 「울부짖음」을 창작할 당시 페요테를 했음을 밝힌다. 변화된 혹은 확대된 자의식 속에 있던 긴즈버그는 자신의 방 창문 너머로 성서에 등장하는 신, 몰록(Moloch)을 보게 된다. 긴즈버그는 「울부짖

음」의 2부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놓았다.

시멘트와 알루미늄으로 된 어떤 스텍크스가 그들의 두개골을 세계 쳐서

열고는 지력과 상상력을 먹어 치웠나?

몰록! 고독! 타락! 추함! 쓰레기통과 얻기 힘든 돈! 아이들은 계단 아래서

비명을 지른다! 소년들은 군대에서 호느낀다!

늙은이들은 공원에서 한탄한다!

몰록! 몰록! 몰록의 악몽! 사랑이 없는 몰록! 정신병적인 몰록!

인간의 흑독한 심판관 몰록!

불가해한 감옥 몰록! 죽음의 상징인 혼이 없는 교도소 그리고 슬픔의

국회! 몰록의 빌딩들은 재앙! 거대한 전쟁기념비 몰록!

인사불성 된 정부

몰록!

What sphinx of cement and aluminum bashed open their skulls and ate up
their brains and imagination?

Moloch! Solitude! Filth! Ugliness! Ashcans and unobtainable dollars! Chil-
dren screaming under the stairways! Boys sobbing in armies! Old
men weeping in the parks!

Moloch! Moloch! Nightmare of Moloch! Moloch the loveless! Mental Mo-
loch! Moloch the heavy judger of men!

Moloch the incomprehensible prison! Moloch the crossbone soulless jail-
house and Congress of sorrows! Moloch whose buildings are judg-
ment! Moloch the vast stone of war! Moloch the stunned govern-
ments! (CP 139)

창문 너머 보이는 건물들이 체물로 바친 아이들을 먹어 삼키던 몰록으
로 보인 까닭은 환각 때문이었다. 환각으로 감정이 고취된 긴즈버그에게
자신이 속한 세상은 몰록과 같았다. 평소에 자신이 가졌던 미국사회에 대

한 감정이 물록의 신화로 다가온 것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긴즈버그는 마약을 한 후의 환각이 시 창작에 도움이 되며, 마약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된다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마약은 긴즈버그에게 예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그래서 마약을 한 상태에서는 거의 시를 창작했다. 그리고 당시의 감정을 되도록 시에 옮겨 놓았다. 이와 같이 긴즈버그에게 마약은 시적 예술성을 획득하는 한 방안이었다. 다음에 인용하는 「웨일즈 방문」(“Wales Visitation”)에서도 긴즈버그의 그런 태도가 나타난다.

산 가장자리에 떠오르고 내리는 하얀 안개
 바람 부는 강에서 흔들리는 나무들
 구름은 피어오른다
 나부끼는 거대한 회오리 위에서 안개를 걷으며
 푸르른 험한 바위를 따라 세차게 쏟아지는 양치식물들 위에서
 아주 아름답게 흔들린 것이
 비오는 골짜기 속 칸막이 진 유리 사이로 언뜻 보였다—

White fog lifting & falling on mountain-brow
 Trees moving in rivers of wind
 The clouds arise
 as on a wave, gigantic eddy lifting mist
 above teeming ferns exquisitely swayed
 along a green crag
 glimpsed thru mullioned glass in vally raine— (CP 488)

그런데 이 시에서는 마약을 하고나서의 직접적인 느낌이나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긴즈버그는 웨일즈를 방문하고 그 느낌을 옮겨 이 시를 창작했는데, 시를 통해 독자들에게 그저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의 낭

만주의 시를 읽는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할 뿐이다. 만약 긴즈버그가 1968년 9월 24일에 방송된 Firing Line이라는 토크쇼에 출현해서 이 시가 자신이 LSD를 한 상태에서 만든 시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 「웨일즈 방문」이 마약과 관련된 시라는 것을 유추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긴즈버그는 이 방송에서 「웨일즈 방문」을 낭송한다. 낭송이 끝난 후 LSD가 이와 같은 시를 창작하는데 있어 서정적인 감각을 가져다주었냐고 질문하는 사회자에게 긴즈버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 자연의 환영을 가지면서 블레이크와 워즈워스를 불러냈습니다. 제 생각에 LSD에서 비롯되는 것은, 마치 산비탈을 수놓는, 공허한 눈빛으로 턱을 돌리는 양과 같이 특정한 항목으로 입증되는 인위적인 환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은.....

저는 LSD가 저의 마음을 뚜렷하게 했고 거대하고 광활한 자의식의 감각을 받아들일도록 열린 상태로 남겨두었다고 생각합니다. (SM 90-1)

긴즈버그는 LSD의 역할을 강조한다. 「웨일즈 방문」은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시와 워즈워스의 시와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가지는데, 이 상호텍스트성은 LSD가 가져다 준 서정적인 감각에서 비롯된다(Walker 208). 긴즈버그는 LSD가 시를 쓰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다. 샤머니즘 의식이 존재했던 몇몇의 남아메리카 문화에서 향정신성 약물로써 사용되어 오다가 현대에 이르러 환각성 약물로 재발견 된 LSD는 긴즈버그에게 시적 영감을 주는 역할을 했다(Paulke 531). 그런데 긴즈버그가 언급하는 LSD는 문학에 관련된 것 이외에도 다른 역할을 한다. 긴즈버그에게 이 LSD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의미를 가진다. 문학과 정치성이 그것이다.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기가 이미 LSD가 불법물질로 규정된 이후임을 감안

하면 긴즈버그의 LSD에 대한 발언은 정치적 의미도 가진다.

이 시와 관련된 LSD에 대한 언급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긴즈버그의 정치적 의도는 지젝이 말하는 “좌파의 은밀한 저항 방법”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지젝은 은밀한 저항 방법을 비밀경찰의 활동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비밀경찰들은 감시 대상이 비밀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큰 실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젝은 “어떤 것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음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마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처럼 혼란을 주는 방식”이 좌파의 은밀한 저항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지젝 93). 긴즈버그가 방송에서 「웨일즈 방문」을 낭송하기 위해 LSD의 이야기를 끄집어 낸 것이 순전히 시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만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은밀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방송에서 시와 연관된 LSD의 의미를 밝힘으로서 정치적 의도는 생겨났다.

긴즈버그는 술과 담배는 중요시하면서 특정 약물은 금지하는 미국정부의 위선적 행태에 대해 짜증냈다(Morgan 323-24). 긴즈버그가 「반 고흐 귀에 죽음을!» (“Death to Van Gogh’s Ear!”) 같은 작품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정부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마리화나는 자애로운 마약이지만 존 에드가 후버는 자신의 치명적인 위스키를
선호한다
그리고 노자와 6번째 왕조의 헤로인은 전기의자로 처형
당했다
하지만 불쌍한 병든 마약장이들은 몸을 뉘일 곳이 없다
우리 정부에 속한 중독자들은 치료를 위해 조기 방어 경보 레이더 시스템만큼
시대에 뒤떨어진 콜드터키 치료법을 개발했다.

Marijuana is a benevolent narcotic but J. Edgar Hoover prefers his deathly
scotch
And the heroin of Lao-Tze & the Sixth Patriarch is punished by the electric
chair
but the poor sick junkies have nowhere to lay their heads
fiends in our government have invented a cold-turkey cure for addiction as
obsolete as the Defense Early Warning Radar System. (CP 176)

위에 인용된 부분에서 긴즈버그는 존 에드가 후버(J. Edgar Hoover)라는 인물을 언급한다. FBI국장이었던 에드가 후버가 스카치위스키를 선호한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마리화나보다 술에 더 관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마약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는커녕 약물 중독자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그 덕분에 약물중독자들은 기댈 곳이 없어졌고 콜드터키라는 중독치료법을 개발했다. 적응기간 없이 한 번에 끊는 것으로 중독치료를 하는 콜드터키는 확실한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심한 중독자가 실시했을 경우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 위험도 동시에 가진다. 긴즈버그는 중독자들이 콜드터키와 같은 원시적인 치료법을 택하는 것은 미국정부의 마약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보이기 위해 이런 사실들을 시에 적었다. 또한, 긴즈버그가 마리화나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그런 사실을 시에 적은 것은 마리화나의 약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긴즈버그는 다음에 인용하는 「나른한 눈에 맺힌 모습들」(“Reflections in Sleepy Eye”)과 같은 시에 마리화나의 효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마리화나는 말라가는 림프-
선에 아주 좋다, 감기, 독감,
귀를 압박하는 유행성 감기와

유스타키오관 막힘 증상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

Cannabis excellent for drying lymph-
glands, specific relief for
symptoms of colds, flu,
ear pressure grippe &
Eustachian tube clogging— (CP 532)

이러한 마리화나의 약효에 대한 긍정적 믿음은 마리화나를 지속적으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미국정치에 대한 긴즈버그의 불만을 가속시킨다. 그리고 그런 불만은 긴즈버그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마리화나의 긍정적 효과를 믿으면서 미국 정치의 잘못된 정책을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결국, 미국정부가 만들어낸 분위기에 대항하는 마리화나 합법화 운동이 일어난다. 긴즈버그도 적극적으로 합법화 운동에 참여했다. 긴즈버그가 마리화나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마리화나가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 목적으로 미국정부가 그것을 이용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미국정부가 마약을 정치적 도구로 삼은 이유는 미국 정부에 관여된 인사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하거나 지지층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론 선동을 위해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자 마약을 이용한 것이다. 긴즈버그는 마약으로 인한 부당한 일을 없애자는 이유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했다. 긍정적인 부분을 잘 살리면 세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긴즈버그는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위해 노력했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들이 더욱더 긴즈버그를 반정부인사로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원래 미국에서 불법이 아니었던 LSD는 1966년 2월 1일에 불법물질로 규정된다. 당시에 젊은 층에서 만연했던 LSD를 불법물질로 규정한 것은 미국정부가 정부에 반하는 행태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정부는 마약과 관련된 많은 범죄자를 양성했다. 긴즈버그의 주변 인물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긴즈버그가 체리 밸리(Cherry Valley)에 농장을 구입하여 친구들과 어울려 살 때 긴즈버그는 주위를 경계해야 했다. 긴즈버그가 농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은 농장 내에 마약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마약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다주었는지를 보았기 때문이었기도 했지만, 경찰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Morgan 459). 다음에 인용되는 「임시 속보」(“News Bulletin”)를 쓰게 된 것도 체리 밸리에 머물고 있던 긴즈버그에게 활발히 사회운동을 펼치던 애비 호프만(Abbie Hoffman)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규제되는 물질 마리아나의 범죄적 소지”가—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왔다
 나는 화가 치밀었고 록펠러 주지사에게
 수정 해골 엽서를 보냈다

애비 호프먼은 불시단속 당했다
 100만 파운드의 코카인

.....
 도처에서 마약 불시 단속이 벌어질 것이다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Marijuana” came over the radio
 I got mad & sent Gov. Rockefeller a

crystal skull postcard

Abbie Hoffman just got busted
million pounds of Cocain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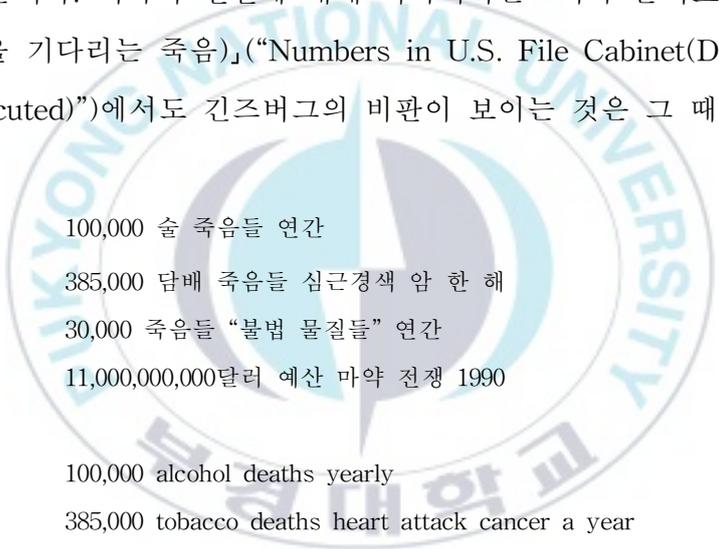
It'll begin all over dope raids (CP 613)

긴즈버그가 「임시 속보」와 같은 시를 쓴 것은 호프만의 체포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긴즈버그가 시에서 100만 파운드의 코카인으로 풍자하고 있지만 호프만이 체포될 때 그가 소지했던 코카인은 3 파운드의 양이었다. 미국은 마약으로 호프만을 처벌했다. 호프만은 위장경찰들에 의해 함정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정부는 호프만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 폭력을 위해 마약이 사용되었다. 미국정부가 미국시민에게 마약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부에 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공포를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긴즈버그는 호프만을 구하기 위해 록펠러 뉴욕 주지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 사회운동을 하던 호프만이 함정수사에 의해 체포된 것은 긴즈버그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행동은 마약으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분노의 표출방법이기도 했지만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긴즈버그는 “도처에서 마약 불시 단속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미국 정부가 긴즈버그를 함정에 빠뜨려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훗날 사실로 밝혀졌다. 그 작전에 관여했던 피의자가 법정에서 그것에 대해 진술했다. 폭행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그에게 경찰이 긴즈버그를 함정수사 하는 것을 도와주면 형을 감해주겠다고 제안했음을 그 피의자는 법정에서 밝혔다. 긴즈버그는 그 사건에 대해 “이런 상황은 경찰국가의 올라

미가 나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처럼 느껴지며, 이런 느낌은 내가 당시 경찰 국가 상태에 있었던 체코의 프라하에서 경험했던 것과 유사하다(I feel like the noose of the police state is closing in on me. I've had the experience of police states in Prague, and it's very similar)”고 말했다. 이 내용은 뉴욕 타임스에 1968년 4월 14일자 기사로 자세하게 실리기도 하였다.

긴즈버그는 미국정부의 마약정책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미국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인권이 희생당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미국 문서보관함 속 숫자들(처형을 기다리는 죽음)」(“Numbers in U.S. File Cabinet(Death Waits to Be Executed)”)에서도 긴즈버그의 비판이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100,000 술 죽음들 연간
 385,000 담배 죽음들 심근경색 암 한 해
 30,000 죽음들 “불법 물질들” 연간
 11,000,000,000달러 예산 마약 전쟁 1990

100,000 alcohol deaths yearly
 385,000 tobacco deaths heart attack cancer a year
 30,000 deaths “illicit substances” yearly
 \$11,000,000,000 budget war on drugs 1990 (CP 982)

위 인용부분에서는 긴즈버그의 비판이 숫자로 제시되고 있다. 긴즈버그가 시에서 밝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해 미국에서 알콜 중독으로 죽는 사람의 수는 10만 명, 흡연으로 죽는 사람의 수는 38만 5천명, 마약으로 죽는 사람은 3만 명이라는 것이다. 단순 숫자비교만으로도 독자들은 어느

것의 해악이 더 큰 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더구나 1990년도 마약과의 전쟁에 미국 정부가 사용한 돈이 110억 달러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마약 단속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동안 술과 담배에 대한 단속에는 돈 한 푼 쓰지 않는 미국정부의 아이러니를 긴즈버그는 간단명료하게 보여준다.

마약이란 주제는 꾸준히 긴즈버그 시에서 나타난다. 긴즈버그가 마약을 계속했고 마약에 중독된 친구들 중 일부가 마약을 사기 위해 긴즈버그의 돈을 훔치는 등의 마약관련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마약의 불법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사회를 통제하려는 미국정부의 태도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긴즈버그의 후기 시, 「메세지 보내기」 (“Sending Message”)에 여전히 마약에 대한 언급이 실려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들은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괜찮다고
 그들은 낙타처럼 생긴 끈대 머저리들이 술집에서 카멜 담배를 피우는 카툰
 살롱의 만화 속에 메시지를 전한다, 5살짜리들이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
 뉴욕 타임스를 통해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은 메시지를 전한다
 CIA가 콘트라 코카인 밀매자들과 공식적으로 연관이 없음을
 코카인에 중독된 워싱턴 포스트의 전문가도 같은 메시지를-
 코카인에 중독된 젊은 늙은 독자들에게 전한다

They are sending a message to the youth of America
 Smoking medical marijuana's all right
 They're sending a message in cartoon saloons hard-ass blokes look
 like camels smoke Camels at the bar, 5 years olds love it,
 To the youth of America they're sending a message
 CIA no official connections to Contra coke dealers in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expert crackheads send same messages to adolescent Senior citizen crackhead readers (CP 1110)

시를 통해 마약에 대한 미국정부의 행태를 고발하는 긴즈버그의 모습에서 그의 태도는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시인 자신이 그만큼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시의 대상인 미국정부의 행태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신의 에세이, 「개인적 자의식」(“Personal Consciousness”)에서 긴즈버그는 “제가 제시하는 LSD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것이 해결책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관되어 있는 많은 종류의 정신적 혁명이 필요한 정치적 냉전을 특히 초월하기 위한, 일반적이면서 정신적으로 혁명적인 기폭제로서 이해되기를 희망 합니다”(DP 127) 라고 이야기한다. 이 구절은 마약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긴즈버그의 사라지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다. 긴즈버그에게 마약은 그저 좋은 감정을 이끌어 내주는 도구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마약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 긴즈버그를 비롯해 전 세계의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이 필요할 경우 미국정부의 희생양이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약에 대한 내용은 긴즈버그의 환각체험과 마약사용, 마약을 정치수단으로 이용한 미국 정부의 행태 그리고 마약에 대한 시인의 견해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미국정치에 대한 긴즈버그 시의 폭로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긍정적 효과에 대한 믿음 하에 마약을 사용했던 긴즈버그가 마약에 대한 미국정치에 반대하는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게 된 것은, 미국정치가 이익을 위해 인권을 탄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긴즈버그는 미국정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멈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를 통해 마약과 관련된 미국정치의 부당함을 고발한다.

IV. 전 지구적 공동선을 향한 노력

긴즈버그는 개인적인 여행경험에 더해 국제적 명성을 가진 시인으로서 여러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서 세계정세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결국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의 나라인 미국에 국한되어 있던 올바르지 못한 민주주의와 인권탄압에 대한 시야는 전 세계로 확장된다. 새로운 경험들로 인해 비로소 긴즈버그는 전 지구적 공동선(Common Good)을 향한 노력을 하게 된다. 긴즈버그의 공동선은 모두가 공유하는 공동의 세상 속에서의 선(善)을 향한 추구로 이해 할 수 있다. 긴즈버그는 모두가 공평하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노력했다. 공동의 선 추구는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한 집단에 의해서 피해를 입거나 배제되는 집단이 생기는 사회는 공동선이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한다. 따라서 긴즈버그가 시를 통해 보인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고발은 긴즈버그의 공동선을 향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관점이다. 이것은 배제된 자가 없는 세상을 향한 노력을 공동선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지젝의 노선과도 일치한다(지젝 13).

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전쟁에 대한 불안함을 만들어 내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1960년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공유되었던 히피운동과 같은 반전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었고 그런 분위기는 시인 긴즈버그에게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히피문화는 긴즈버그와 비트세대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히피문화가 긴즈버그의 의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 여행을 통해 직접 경험하게 된 사건들도 긴즈버그 시에 새로운 주제로 사용된다. 그런 영향은 긴즈버그의 작품에 일종

의 지역적 탈경계성을 부여하게 됨으로서 1950년대 이후 긴즈버그 시에 새로운 경향을 만들어낸다. 이 탈경계성은 긴즈버그의 시가 1950년대를 넘어서게 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긴즈버그의 공동선이 시작되는 기점이 된다. 자신과 자신의 주변 그리고 미국에 국한되었던 1940, 50년대를 넘어서면서 긴즈버그의 시야는 범세계적이 된다. 긴즈버그는 시에 새로운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등장시킨다. 따라서 긴즈버그의 시 「5월의 왕」(“Kráľ Majáles”) 같은 작품에서는 미국 아닌 곳에서 시인이 경험했던 일을 확인할 수 있다. 「5월의 왕」에는 긴즈버그가 체코에서 경험했던 일이 잘 묘사되어 있다.

나는 프라하에서 세 번 체포되었다, 한번은 나로드니 거리에서 취한 채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한번은 호모라고 외친 콧수염이 있던 요원에 의해 한밤중의 길바닥 위에 때려
 눕혀졌기 때문에,
 한번은 일반적이지 않은 성 정치 꿈 견해들이 적힌 노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푸른 유니폼의 형사들에 의해 비행기로 아바나에서 추방되었다,
 그래서 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정장을 한 형사들에 의해 비행기로 프라하에서
 추방되었다,

 그리고 내가 5월의 왕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는 나를 길바닥에 때려눕혔고,
 경찰서에 밤새도록 나를 가둬놓았고, 프라하의 봄철 내내 나를 쫓았다,
 비밀리에 나를 억류했고 우리의 왕국에서 나를 강제로 추방했다
 비행기로.
 그래서 나는 하늘 한 가운데서 비행기 좌석에 앉아 이 시를 적었다.

For I was arrested thrice in Prague, once for singing drunk on Narodni
 street,
 once knocked down on the midnight pavement by a mustached agent who
 screamed out BOUZERANT,

once for losing my notebooks of unusual sex politics dream opinions,
and I was sent from Havana by plane by detectives in green uniform,
and I was sent from Prague by plane by detectives in Czechoslovakian
business suits,

.

And tho' I am the King of May, the Marxist have beat me upon the street,
kept me up all night in Police Station, followed me thru Springtime
Prague, detained me in secret and deported me from our kingdom by
airplane.

Thus I have written this poem on a jet seat in mid Heaven. (CP 361-62)

긴즈버그가 프라하에서 머물고 있던 5월에 그곳에서는 전통축제가 열렸다. 공산정권이 권력을 장악했던 1945년 이후로 20년 만에 다시 열린 5월의 축제였다. 5월의 행사는 5월의 여왕(Královna Majáles)과 5월의 왕(Král Majáles)을 뽑는 학생들의 전통적 행사였고, 새로이 친구가 된 체코의 작가 요셉 스크보레키(Josef Skvorecky)의 추천으로 긴즈버그는 장난스럽게 5월의 왕에 지원을 하고 5월의 왕으로 선정된다(Morgan 402-7). 프라하에서 젊은이들의 환호를 받은 긴즈버그는 당시 자신이 갈망하던 락 스타(Rock Star)가 된 것과 같은 기분을 느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환호에 긴즈버그는 행복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의 입장은 완전히 반대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에게 한 외국인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방종한 분위기는 상당히 거슬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긴즈버그는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에 의한 함정수사에 의해 추방당한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추방당하기 이전에 긴즈버그는 쿠바를 방문했었는데 쿠바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동성애나 검열에 대한 비판을 했다가 역시 추방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쿠바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추방된 두 번의 두려운 경험은 긴즈버그의 의식 속에 무겁게 자리하게 되며, 당시의

트라우마는 평생 동안 긴즈버그를 따라다닌다. 예상치 못했던 공산국가들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후 긴즈버그가 미국의 강압적인 정치상황을 논할 때나 작품 속에 경찰국가(Police State)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이때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국가 권력이 전체적으로 행사되어 경찰권이 국가를 지배했던, 17-18세기 유럽의 절대군주 국가를 일컫는 경찰국가라는 용어는 그래서 긴즈버그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런 개인적 경험에 더해 냉전시대에 접어들며 국가 간 경계를 침범하기 시작한 미국정부의 행동 역시 긴즈버그에게 영향을 끼치며 긴즈버그 시의 탈경계성을 더욱 확대시킨다. 다음에 인용하는 「맹세」(“A Vow”)와 같은 시에서도 독자들은 긴즈버그 시의 지역적 탈경계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경험은 또한 전쟁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이 되어 긴즈버그는 전쟁이 인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숲 속의 다이너마이트,
나뭇가지들이 느리게 나부끼고
천둥소리가 계곡 아래로,
헬리콥터들이 국립공원, 메콩 강 늪을 굉음을 내며 질주한다,
주택단지 사이로 다이너마이트 화염이,
폭력이 경찰서에서 비명을 지른다, 시장은 라디오에서 화를 낸다,
검둥이들에게 폭탄을 투하하라!
화염을 북베트남 중국에 투하하라

Dynamite in forests,
boughs fly slow motion
thunder down ravine,
Helicopters roar over National Park, Mekong Swamp,

Dynamite fire blasts thru Model Villages,
Violence screams at Police, Mayors get mad over radio,
Drop the Bomb on Niggers!
drop Fire on the gook China (CP 468)

「맹세」는 여러 국가를 여행하던 긴즈버그가 1963년 5월 31일에 사이공(Saigon)에 도착하여 미국 신문기자들을 만나게 되고, 베트남 전쟁 상황에 대해 듣게 되면서 쓰여 지게 된다(Morgan 373-74). 긴즈버그가 전쟁 상황 속에 놓인 베트남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맹세」와 같은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와 본인이 현지에서 느낀 전쟁의 분위기 덕분이었다. 아직 베트남전의 분위기가 미국에 폭넓게 전달되지 않았던 당시에 긴즈버그가 베트남전의 사실적 분위기를 전달하는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라는 제한된 장소를 벗어남으로써 가능했다. 긴즈버그가 전장에 참여한 경험은 없지만 현지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긴즈버그의 전쟁에 대한 느낌은 더욱 사실적이 되었다. 당시의 경험은 긴즈버그가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지속될 만큼 영향이 있었다.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던 전쟁에 깊숙이 관여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정치상황에 관여하는 비중을 높여 갔다. 1970년 4월의 끝자락에 닉슨 대통령은 전쟁을 확대시키고 캄보디아를 침공하기로 한다. 그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반전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고, 긴즈버그 역시 반전문화를 주도하던 히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Morgan 469). 이 시기에 쓰인 많은 시들이 전쟁과 반전운동을 담고 있는 것은 그런 사회적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긴즈버그는 「시카고의 열려진 창」(“An Open Window on Chicago”)과 같은 시를 통해 전쟁의 분위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미국사회를 묘사한다.

정신과 의사가 이 호텔 12층을 방문했다—
 어디에서 온 분노인가요?
 밖이요! 라디오 메시지들, 텔레비전의 영상들
 전자 방송망이 거리에
 살인의 두려움을 전파 합니다—
 “정보통신 매체가”
 베트남 전쟁을 전하고 그 불안감은 호텔방이나 버스에 있는
 바깥의 광활한 장소에 앉아서, 조용히 명상하는
 모든 개인의 피부에—
 삐 삐 돈 쓰 돈 라디오는 켜져 있고, 텔레비전은
 중얼중얼,
 충격적 소식들이 살에 와 닿습니다
 그의 살 나의 살 모두 똑같아요.—
 The psychiatrist came visiting this Hotel 12th floor—
 Where does the Anger come from?
 Outside! Radio messages, images on Television,
 Electric Networks spread
 fear of murder on the streets—
 “Communications Media”
 inflict the Vietnam War & its anxiety on every private skin
 in hotel room or bus—
 Sitting, meditating quietly on Great Space outside—
 Bleep Bleep dit dat dit radio on, Television
 murmuring,
 bombshells crash on flesh
 his flesh my flesh all the same.— (CP 481-82)

이 「시카고의 열려진 창」(“An Open Window on Chicago”)은 베트남
 전쟁 반대시위를 위해 시카고에 도착한 긴즈버그가 집회 전날 만든 시이

다. 자신이 묵었던 호텔의 창문 넘어 보이는 시카고의 야경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시에서 긴즈버그는 자신의 심리를 묘사한다. 인용된 부분은 긴즈버그가 느끼는 스산한 미국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긴즈버그가 느끼는 시카고는 전쟁의 분위기가 깔려있는 곳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전파를 통해 베트남전에 대한 소식을 미국시민들에게 전달한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들은 호텔방이나 버스, 밖에서 명상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다. 당신의 분노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질문하는 정신과 의사에게 긴즈버그는 밖에서 그것이 비롯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통신매체가 전달하는 베트남전에 대한 정보가 그를 화나게 했다는 것이다. 긴즈버그는 대중매체를 통해 미국정부가 만들어낸 사회분위기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미디어를 이용해 사회분위기를 조장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 안전에 대한 지적의 설명을 대입해보면 상당히 실효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적은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분노를 폭발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지적은 그런 정책이 “민주주의의 적인 미국의 모든 보수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한다(지적 123-24). 미국정부는 대중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 지속되는 불안감 속에서 국민들의 분노표출을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다. 미국정부가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분위기에서 긴즈버그는 지속적으로 불안함을 느낀다. 그런 시인의 예민함이 시를 통해 표현된다.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이런 미국정부의 행위들에 더해 본인의 경험이 더해져 더욱 깊어진다. 긴즈버그는 인도여행을 통해 전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 당시에 목격한 전쟁이 남긴 모습들은 긴즈버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1971년 11월에 쓴 시 「체소르거리의 9월」(“September on Jessore Road”)에 긴즈버그는 그런 전쟁의 모

습을 묘사했다.

9월 제소르 거리 인력거

5만의 영혼이 한 캠프에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홍수 속 대나무 오두막들의 열

뚝개가 열린 하수구들, 그리고 음식을 기다리는 물에 젖은 가족들

경계에서 트럭들이 침수됐고, 식량은 지나갈 수 없다,

미국의 천사 같은 자동차야 부디 빨리 와라!

오늘은 대사의 은신처가 어디에 있나?

그의 헬리콥터는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관총을 쏘고 있는가?

방콕의 밀림 속에서 마약을 밀수하는?

미국 국제 개발처의 헬리콥터들은 어디에 있지.

빛의 미국 공군은 어디에?

북 라오스를 밤낮으로 폭격하나?

대통령의 황금의 군대들은 어디에 있는가?

자애롭고 뻔뻔스러운 순진한 억만장자들은?

우리에게 의약품 식량과 구호품을 가져다주는?

북 베트남을 네이팜탄으로 공격하고 더 많은 비탄을 야기하는?

September Jessore Road rickshaw

50,000 souls in one camp I saw

Rows of bamboo huts in the flood

Open drains, & wet families waiting for food

Border trucks flooded, food cant get past,

American Angel machine please come fast!

Where is Ambassador Bunker today?
Are his Helios machinegunning children at play?

Where are the helicopters of U.S. AID?
Smuggling dope in Bangkok's green shade.
Where is America's Air Force of Light?
Bombing North Laos all day and all night?

Where are the President's Armies of Gold?
Billionaire Navies merciful Bold?
Bringing us medicine food and relief?
Napalming North Vietnam and causing more grief? (CP 581)

긴즈버그가 벵골(Bengal) 서쪽에 위치한 난민수용소를 방문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쓴 이 시는 방글라데시의 한 거리풍경을 보여주며 시작한다. 이 시가 쓰인 1971년에 방글라데시에서는 파키스탄에서 독립하려는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이 있었다. 제소르 거리는 전쟁으로 위협받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방글라데시인 들이 인도의 켈커타로 향하는 길이었다. 긴즈버그가 전쟁의 희생자들이 머무는 이 장소를 택한 것은, 전쟁이 영향을 미친 방글라데시를 그려내는데 있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Islam 29).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모습을 그려내는 이 시의 중반부에서 미국을 꼬집어내는 것은, 자신이 전해 듣는 미국의 소식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곳의 모습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긴즈버그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버거운 방글라데시인 들을 마주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은 지구 반대편에서 전투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곳에 주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쏟는 미국을 긴즈버그는 애타게 찾는다. 긴즈버그가 뚜렷이 목격한 전쟁의 상흔들은 긴즈버그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었음이 분

명하다. 긴즈버그는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한다. 그러한 집회의 일부는 군수기지 앞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긴즈버그가 군수기지 앞을 집회장으로 선택한 것은 군수기지에서 만드는 군수물자들이 전쟁을 연장시키는 주요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전쟁에 대한 의식이 확고해져감에 따라 긴즈버그는 인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한 생각은 결국 긴즈버그의 공동선 추구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긴즈버그가 시를 통해 전쟁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그려내는 것은 전쟁으로 피해 입은 인권이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러한 긴즈버그의 공동선을 향한 노력은 지역적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시작된다. 긴즈버그는 지명도가 높아지고 여행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국이라는 자신이 가졌던 국가경계를 넘어선다. 더불어 냉전시대가 끝난 후에도 미국정부가 행한 내정간섭을 통해 미국은 제국주의적 면모를 드러낸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사라질 것 같았던 전쟁에 대한 긴즈버그의 고민이 지속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전 세계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던 미국은 서슴없이 새로운 전쟁을 일으킨다.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군수물자의 판매를 위해 미국은 전 세계 어디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거나 개입한다. 그런 미국의 기치는 세계 평화의 유지였다. 긴즈버그는 지속적으로 「국회의사당 분위기」(“Capitol Air”)와 같은 자신의 시에 이런 상황들을 다룬다.

장군들은 그들이 싸울만한 가치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무엇을 위해 부당한 전쟁을 시작하는지 말하지 않아요

이란인 인질 미디어 과잉홍분 엉망입니다

이란 왕은 이란 돈 90억 달러를 들고 도망쳤지요

커밋 루즈벨트와 그의 미국 달러는 모사데크를 전복 시켰습니다

미국은 모사데크의 기름을 원했고 아야톨라의 쓰레기를 취했지요

미국은 왕을 앉히고 왕의 비밀경찰인 사바크를 훈련시켰습니다
모든 이란은 우리의 25년 인질이였지요 그게 맞아 잭

로메로 대주교는 엘살바도르의 군사정부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중지해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에 맞았어요
화이트 대사는 백악관의 거짓말들을 밀고 했습니다
레이건은 대사를 고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가 죽은 수녀를 마주했기 때문이에요

The Generals say they something worth fighting for
They never say what till they start an unjust war
Iranian hostage Media Hysteria sucked
The Shah ran away with 9 Billion Iranian bucks

Kermit Roosevelt and his U.S. dollars overthrew Mossadegh
They wanted his oil then they got Ayatollah's dreck
They put in the Shah and they trained his police the Savak
All Iran was our hostage quarter-century That's right Jack

Bishop Romero wrote President Carter to stop
Sending guns to El Salvador's Junta so he got shot
Ambassador White blew the whistle on the White House lies
Reagan called him home cause he looked in the dead nun's eyes (CP 753)

당시의 세계정세를 다루고 있는 이 장사에서 긴즈버그는 중동지역의 정세에 대해서도 말을 한다. 특히 위에서 인용된 부분은 이란과 엘살바도르에서 발생했던 일들을 열거하는데, 그 사건들은 모두 미국정부가 개입한 일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긴즈버그는 몇 가지 사건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다. 미국의 장군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억지 이유를 만들어 이란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미국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돈을 들고 도망가는 이란 왕(The Shah ran away with 9 Billion Iranian bucks)”에 대한 묘사는 1979년의 이슬람 혁명을 떠올리게 한다.

이 시가 쓰여진 바로 전 해인 1979년 2월에 있었던 이슬람 혁명 (Islamic Revolution)은 이란 민중의 봉기였다. 호메이니 혁명이라고도 알려진 이 혁명을 통해 이란민중은 친미독재를 펼치던 팔레비 왕조(Pahlavi Dynasty)를 몰아내고, 당시 민중을 이끌던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Ayatollah Ruhollah Khomeini)를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앉힌다. “1979년 혁명으로 이란 민중들은 마지막 왕 모하메드 레자 팔레비(Mohammed Reza Pahlavi)로 대표되는 친미독재집단인 샤(Shah) 왕조를 무너뜨렸고, 그때껏 이란 석유를 착취하던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석유 이권을 되찾았다”(김재명 243). 바로 윗부분 “이란인 인질 미디어 과잉흥분 엉망입니다 (Iranian hostage Media Hysteria sucked)”는 같은 해 11월에 있었던 테헤란 미 대사관 점거사건(Iran Hostage Crisis)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단어만 나열된 이 문장은 긴박한 상황에서 들리는 고함소리와 같은 어수선함을 전달한다. 이 사건 역시 이슬람 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미국의 태도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슬람 혁명으로 국외로 추방된 이란의 왕은 멕시코에 머무는 도중 암에 걸렸음을 발견하게 된다. 의사들의 권유로 암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입국하려하자 이란에서는 왕의 미국 입국 반대 기류가 형성된다. 이란 정부는 미국에게 왕을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청하지만 미국은 거부한다. 나름의 고심을 한 결정이었지만 지미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의 결정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은 심화되고 결국 반미시위를 주도하던 이란의 학생시위대는 테헤란 소재 미국대사관을 습격하여 점거한다. 시위대에 의해 인질이 된 52명의 미국인은 444일 뒤에 풀려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미국은 상당히 괴로운 444일을 보내야 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행태가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이란의 민주화를 주도했던 모하메드 모사데크(Mohammad Mossadegh)는 총리가 되자 개혁을 실시한다. 외국세력에 의존해 자신들의 안위만 돌보는 이란 왕조를 반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중에서도 이란의 석유를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영국이 만들어낸 영국과 이란의 합작석유회사를 국유화하였다. 이란의 석유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던 미국과 영국은 단합하여 석유무역조치를 취해 이란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안긴다. 더구나 커밋 루즈벨트(Kermit Roosevelt)와 미국정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사데크를 축출할 계획을 세운다. 미국은 자신들의 돈으로 이란의 비밀경찰 사바크(Savak)를 훈련시키고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이란의 왕을 권력의 중심에 앉힌다.

결국 이 쿠데타로 인해 모사데크는 총리직에서 쫓겨나 감금되고 이란은 다시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모사데크가 쫓겨난 후 다시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까지 이란시민들은 대략 25년간을 기다려야 했다. 긴즈버그는 이것을 “이란은 25년간 우리의 인질이였다(All Iran was our hostage quarter-century)”로 표현한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위에서 인용된 부분의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연은 1979년의 사건을, 두 번째 연은 1959년의 사건을 다룬다. 긴즈버그가 시간의 흐름을 뒤바꿔 사건들을 나열한 것은 1979년의 사건이, 모사데크가 미국의 공작에 의해 실각한 소위 1953년 쿠데타(1953 coup)의 결과로 발생했음을 암시하기 위함이다. 긴즈버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25년간의 미국의 행태가 결국은 이란 국민들이 분노하여 봉기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국대사관에 있던 미국인들이 이란인들에 의해 감금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

도 결국은 이익을 위해 많은 이란인들을 희생시킨 미국의 업보이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긴즈버그는 갑자기 무대를 중남미로 옮기며 엘살바도르(El Salvador)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다.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엘살바도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다른 나라의 내정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페인의 식민통치를 받던 엘살바도르는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1821년 9월 15일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1841년에 이르러 오늘날의 엘살바도르공화국의 모습을 갖춘다.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립 이후 엘살바도르에서는 독재와 군사쿠데타, 내전이 지속되었으며, 1908년부터 지속된 12년간의 내전은 75,000명의 국민을 희생시켰고 400,000여명의 난민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엘살바도르는 국제적으로 인권후진국이 되었다. 좌익혁명 세력을 고무시킨 니카라과 산디니스타(Sandinista) 혁명이 1979년 7월에 성공하고 중미 반공주의 정책 강화를 내세운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이 1981년 취임하면서, 엘살바도르는 자국의 좌우익 대결과, 미국, 소련, 쿠바, 니카라과 등의 다툼이 혼재하는 냉전의 장이 되었다(노용석 283-87). 미국이 엘살바도르에 개입한 이유는 공산세력이 엘살바도르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엘살바도르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공산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1980년 3월 24일에 엘살바도르에서는 로메로 대주교(Bishop Romero)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로메로 대주교는 암살을 당했던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대주교이었으며, 엘살바도르 군사정권의 비인간적 민주화 운동 탄압에 비폭력투쟁으로 저항했던 인물이었다. 같은 해 12월 2일에는 엘살바도르에서 구호사업을 하던 미국인 수녀와 가톨릭 신도가 엘살바도르 국가보안군(El Salvador National Guard)에 의해 강간, 살해당하는 일이 있

었다. 사건 당시 엘살바도르에 대사로 있었던 로버트 화이트(Robert White)는 엘살바도르에서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는 배경에 미국이 깊이 관여되어있음을 폭로했다. 화이트는 로메로 대주교를 누가 암살했는지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수녀들의 시체를 직접 본 것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래서 화이트 대사를 미국정부가 갑자기 미국으로 불러들인 것은 석연찮은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긴즈버그는 일련의 사건들을 시에서 다시 말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군부에 무기를 지원해주지 말 것을 미국의 대통령에게 엘살바도르의 성직자가 요청하는 것은 엘살바도르의 상황이 정상적이지 못하며 미국이 관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더구나 대주교가 총에 맞고 수녀들이 강간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엘살바도르의 상황이 상당히 비정상적임을 암시한다. 이란에서 민중에 의한 혁명이 일어나고, 추방된 왕을 돌려받으려는 시도가 미국인들을 억류하게 된 사건들은 미국정부가 행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났다. 미국만 개입된 문제는 아니었지만, 공산주의의 확산방지와 기름에서 오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 미국이 한 행동들은 이란 역사에 크게 자리한다. 엘살바도르에서 벌어졌던 반인륜적 사건들 역시 미국이 관여되어 있었다. 미국이 벌인 행동들은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뿌리 깊은 반미문화의 바탕이 되었다. 이처럼 긴즈버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주는지,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이 다른 민족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다주는지를 시를 통해 전달한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여 벌인 일들은 철저하게 공공선을 위반했다.

「국회의사당 분위기」에서 긴즈버그는 몇 가지 사건을 짚막하게 다루고 있지만, 그것의 내용은 방대하다. 독자들은 위에서 인용된 작은 부분만으로도 미국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국제정세에 관여를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떤 비극적 결말을 초래했는지를 알 수 있다. 또 다른 시, 「대중을 위한 시」

("A Public Poetry")를 통해서도 긴즈버그는 미국의 파렴치한 행위들을 폭로한다.

사실은, 러시아인들은 계집애 같은 놈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들도 거대한 황색의 계집애 같은 놈들이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본성적인 계집애 같음 때문에
새로운 세상으로 달아나서 인디언들을 공격했다,
이제 우리는 피바디 석탄회사가 포 코너스를 차지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계집애 같은 우리는 왜놈들에게 원자폭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사돈 남 말하는, 유명한 계집애 같은 놈인 나 자신은
지나치게 겁잔빠는 계집애 같은 국무장관 XYZ가
그의 동전을 과테말라의 원주민 학살자 군사정부에게 주었음을 안다
엘살바도르 암살단을 마주하기에 너무 기겁을 한
영양실조 상태의 멕시코에 거대한 위협을 외치는 아주 작은 니카라과!

The fact is, the Russians are sissies
And Chinese big yellow sissies too
Americans by their nature sissies
Ran away to the New World & beat up Indians,
Now we're gonna let Peabody Coal take their Four Corners away!
So sissy we exploded Atom Bomb on Japs!

I myself a famous sissy, it takes one to know one
and know State Secretary XYZ a prissy sissy
Gave his nickels to Indian killer Juntas in Guatemala
Too freaked out to look El Salvador Deathsquads in the eye
Yelling tiny Nicaragua's a big threat to undernourished Mexico! (CP 869)

러시아와 중국을 계집애 같은 놈(Sissy)으로 조롱하며 시작하는 이 시는 결말에 이르러 미국 시민들을 비난하지만, 우선적으로 미국의 비열한 행태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용된 부분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언급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그들의 행동을 비꼬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뒤이어 미국을 언급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미국 역시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반대로 미국이 비난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행태와 미국의 행태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우선적으로 긴즈버그가 상기시키는 미국은, 똑같이 비열한 자신들의 모태인 영국에서 쫓겨나 미국 땅으로 와서 원주민들을 공격할 정도로 파렴치하다. 미국은 미국인이 만든 석탄회사가 야비한 짓을 하도록 돕기도 한다. 긴즈버그는 블랙 메사 피바디 광산 논란(Black Mesa Peabody Coal controversy)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바디(Peabody Western Coal, 현재 Peabody Energy)라는 석탄업체가 나바호 족(the Navajo Tribe)과 호피 부족(the Hopi Tribe)이 거주하고 있던 곳에 광산을 설립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불공정거래계약을 맺은 사건을 말한다. 피바디는 불공정 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 극대화 시켰으며, 심지어 원주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식수를 오염시키는 비도덕적 행위도 거리낌 없이 저질렀다.

긴즈버그에게 미국은 또한 일본에게 원자 폭탄을 투하한 파렴치한이다. 긴즈버그는 미국이 원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돈 벌이가 되는 곳을 강제로 빼앗은 것과 일본에게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 모두 야비한 행동으로 간주한다.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을 단적으로 야비한 행동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는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 적절한 조치로써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즈버그는 원자폭탄의 투하를 비열한 행동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특히 히피의 관점에서 살

상무기의 사용을 반인륜적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반인륜적 관점의 선상에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킨즈버그는 화자인 자신을 직접적으로 내세운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 사실들은 미국이 중남미지역의 여러 국가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킨즈버그가 말하는 미국은 남의 땅에 쳐들어가 비열한 짓을 저지르며 터를 잡은 것도 모자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서슴없이 비열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킨즈버그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의 세 국가들을 언급하는 것은 미국이 그 국가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 없었고, 그 국가들 모두 미국의 이익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란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의 쿠데타에 모두 개입했고, 민주화를 저지 시켰다. 이러한 미국의 행위는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야비한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타국민의 인권유린에만 그치지 않고 파렴치한 마약거래에도 개입하면서 야비한 행동의 범위를 넓혔다. 미국정치의 마약관련 정책은 또 다른 경계를 침범한다. 다음에 인용하는 「CIA 마약 칼립소」(“CIA Dope Calypso”)와 같은 시에서 킨즈버그는 그런 사실들을 폭로한다.

천구백 사십 구년

중국은 마오쩌둥에 의해 승리를 거머쥐었고

장개석의 군대는 도망쳤다

지난날 그들은 그 곳 태국에서 기다렸다

CIA의 지원을 받아

마약을 태국으로 가는 길로 내려 보내며

처음에 그들은 몽족에게서 훔쳤다
언덕 위쪽에서 그들은 뇌물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곤 그들은 그들의 군대를 산 쪽에게 보냈다
그 사람에게 팔기위한 아편을 수집하면서

*CIA의 지원을 받아
지난날 방콕에서 마약을 판매하던*

In nineteen hundred forty-nine
China was won by Mao Tse-tung
Chiang Kai-shek's army ran away
They were waiting there in Thailand yesterday

*Supported by the CIA
Pushing junk down Thailand way*

First they stole from the Meo tribes
Up in the hills they started taking bribes
Then they sent their soldiers up to Shan
Collecting opium to sell to The Man

*Pushing junk in Bangkok yesterday
Supported by the CIA (CP 997)*

CIA가 마약밀매와 관련되어 있음을 폭로하는 이 「CIA 마약 칼립소」에서 긴즈버그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로 시를 시작한다. 그 이유는, 긴즈버그가 미국정부와 마약이 연계된 사례를 연구하면서 80~90 퍼센트의 불법적인 아편 유통이 인도차이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마약국과 재무부는 미국에 유통되는 헤로인의 80퍼센트가 터키에서 출발해

프랑스의 마르세유로 가서 캐나다의 몬트리올 혹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긴즈버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 헤로인의 80퍼센트가 라오스의 북쪽지방에서 건너왔다(AV 72). 그런 사실들을 시에 열거한 것은 그것이 CIA의 행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긴즈버그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동남아시아의 마약 연계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긴즈버그가 맥앨리스터(McAlister) 교수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장개석(Chiang Kai-shek)의 군대가 중국 공산당에 쫓겨 미얀마의 북쪽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공산군에 내쫓긴 장개석의 군대는 미얀마나 태국으로 피신했다. 미얀마로 도망간 군대는 아편 수확물을 손에 넣기 위해 언덕을 배회했다. 그 이후로 장개석의 군대, 즉 국민당 군대는 마약 사업에 관여했다. 그것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1954년도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국민당 군대는 중국의 원난성을 습격하거나 밀수를 하면서 미얀마 북쪽에서 배회하였는데, 그 활동에 CIA의 부분적인 지원이 있었다(AV 74-5).

그들의 코카인을 노새가 끄는 짐수레에 실어 가지고 내려왔다
철도마을인 치앙라이로
그것을 이웃의 경찰서장 우두머리에게 팔았다
그는 그것을 칙칙폭폭 기차에 실어 마을로 가지고 갔다

CIA의 지원을 받아

하루 종일 방콕으로 마약을 밀매하는

그 경찰관의 이름은 파오였다

그는 대규모의 마약을 팔러 다녔는데 어떻게

국경 세관장이 미 중앙정보부의

국제 개발 처로부터 지불 받았을까

모든 움직임이, CIA의 지원을 받았음을
신문은 전한다

Brought their jam on mule trains down
To Chiang Rai that's a railroad town
Sold it next to police chief brain
He took it to town on the choochoo train

*Trafficking dope to Bangkok all day
Supported by the CIA*

The policeman's name was Mr. Phao
He peddled dope grand scale and how
Chief of border customs paid
By Central Intelligence's U.S. A.I.D.

*The whole operation, Newspapers say
Supported by the CIA (CP 997)*

이 시에서 긴즈버그는 파오라는 인물도 등장시킨다. 방 파오(General Vang Pao)는 베트남, 라오스, 중국 윈난성 등지에서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몽족(Meo Tribe)군대의 지휘자로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을 도왔던 인물이다. 그 파오가 아편을 매매했는데, 그것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긴즈버그는 밝힌다. 마약을 조달하는데 인도차이나 반도가 이용된 것은 이곳이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던 이유가 컸다. 물론 이 지역이 아편이 자라기에 최적의 장소이긴 했지만, 그 곳에 아편을 가져온 것은 영국이었다. 그리고 프랑스가 그곳에서 마약밀매에 관여했던 것은 그들의 전쟁을 위해서였다. 프랑스는 마약운반에서 얻은 이익을 베트남과 전쟁하는데 사

용했다. 미국이 그런 프랑스의 역할을 넘겨받았을 때, 미국의 항공사들도 마약을 운반하기 시작했다(AV 77-8).

위 시에서 언급된 사실들은 미국이 인도차이나 반도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자국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마약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긴즈버그는 미국의 이러한 행태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만 일어나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칼립소 3연작으로 만들어진 「CIA 마약 칼립소」, 「N.S.A. 마약 칼립소」, 「그저 네 라고 말해요 칼립소」(“Just Say Yes Calypso”) 중 두 번째 「N.S.A. 마약 칼립소」의 배경이 중남미가 된 것은 그 때문이다.

리처드 시코드와 올리버 노스는
가치가 있더라도 산디니스타를 몹시 싫어했다
그들은 콘트라 반군이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마약을 밀매했다
그들은 콘트라 반군이 코카인을 팔았기 때문에 의회를 팔 수 없었다

Now Richard Secord and Oliver North
Hated Sandinistas whatever they were worth
They peddled for the Contras to ease their pain
They couldn't sell Congress so the Contras sold cocaine (CP 1000)

리처드 시코드와 올리버 노스라는 미국인들은 산디니스타를 싫어한다는 내용으로 이 시는 시작한다. 이들은 니카라과의 반정부세력 콘트라 반군과의 스캔들에 관여된 인물들이다. 이 인물들이 니카라과의 무장혁명단체인 산디니스타를 싫어한다고 긴즈버그는 이야기한다. 산디니스타는 미국의 입장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었다. 산디니스타가 반미 · 반독재 단체였기 때문이었다. 산디니스타는 미국을 등에 업고 대대로 독재를 펼친 소모사(Somoza) 대통령을 몰아내고 미국이 니카라과 내에서 독점하고 있던 자본

체제에 저항했다. 미국은 이 산디니스타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또 다른 반 정부세력인 콘트라 반군에게 지원했다. 미국정부는 콘트라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해 줬는데, 그 자금은 마약을 통해 조달되었다.

1982년에 미 의회에서는 볼랜드 수정안(Boland Amendment)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은 “니카라과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목적으로 미국 정부가 반군에게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니카라과에서 반군을 이용하려고 했던 레이건 정부는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볼랜드 수정안 및 의회의 견제로 인해 공식적으로 니카라과 반군을 도울 수 없게 되자,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 무기 금수 국가로 분류된 이란에 비밀리에 무기를 팔고 그 돈으로 반군을 도왔다. 이것은 결국 1986년 11월에 불거진 이란-콘트라 스캔들이 되었고, 레이건 행정부는 의회의 각종 청문회와 언론의 집중조명으로 남은 임기 내내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다”(김봉중 226-27). 이러한 내용을 긴즈버그는 시로 옮긴 것이다. 계속되는 내용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의 영부인, 낸시 레이건 여사와 CIA, 노리에가가 등장한다.

낸시 레이건과 CIA

단지 지난날 그들은 노리에가를 발견했다

이제 코카인과 마리화나는 총과 교환되었다

CIA 스파이로써 콘트라 반군의 코카인 가루를 거래하면서

코스타리카 마약 불시 단속 전까지 존 혈이 뛰어다니거나

뛰어다니고는 했던 국경 비행장에서

낸시 레이건과 CIA

단지 지난날 그들은 노리에가를 발견했다

*They discovered Noriega only yesterday
Nancy Reagan & the CIA*

Now coke and grass were exchanged for guns
On a border airfield that John Hull runs
Or used to run till his Costa Rican bust
As a CIA spy trading Contra coke dust

*They discovered Noriega only yesterday
Nancy Reagan & the CIA (CP 1000)*

마누엘 노리에가(Manuel Noriega)는 파나마(Panama)의 독재자였다. 낸시 레이건 여사와 CIA가 노리에가를 발견했다는 말은 레이건 정부와 노리에가가 관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노리에가는 파나마 군부의 실세로서 미국을 등에 업고 많은 비리를 저질렀고, 미국의 마약밀매와도 연관이 있었다. 긴즈버그가 낸시 레이건 여사를 언급한 것은, 낸시 여사가 국정에 깊이 관여했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낸시 여사가 “그저 아니라고 말해요(Just Say No)”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마약퇴치 활동을 했었지만, 정작 레이건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마약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모순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메텔린 카르텔의 라몬 밀리안 로드리게스는
급습당해 감옥에서 자백하기 전까지
미국의 은행을 통해 수억의 그들의 달러를
세탁했고 매우 잘 했다

어제 막 그 돈은 종이에 싸여 땅에 묻혔다

부시가 미국의 마약황제이었을 때

Ramón Milina Rodriguez of Medellin Cartel
Laundered their dollars & he did it very well
Hundreds of millions through U.S. banks
Till he got busted and sang in the tank

*It was buried in the papers only yesterday
When Bush was Drug Czar U.S.A. (CP 1000-1)*

이번에는 메델린 카르텔이 등장한다. 메델린 카르텔은 마약왕이라 불리우는 파블로 에스코바르(Pablo Escobar)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콜롬비아의 마약 조직이었다. 그 조직의 돈세탁을 담당했던 인물이 라몬 밀리나 로드리게스였다. 로드리게스가 미국의 은행을 통해 돈세탁을 했다는 것은 콜롬비아의 마약 조직도 미국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이 된다. 시를 통한 긴즈버그의 폭로는 계속된다.

부시가 CIA의 국장이었을 때
파나마 코카인 밀거래는 화려했다
당신은 조지 부시가 소리 지르는 것을 절대 듣지 못했다
노리에가가 무수히 많은 코카인 달러를 세탁했을 때

부시는 노리에가에게 지불했다, 함께 일하곤 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날씨에 관해 이야기 했었다

그리고선 노리에가는 자신의 동업자를 배신했다
우리의 파나마 운하를 돌려받는 조약으로
그래서 부시가 거대한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부시는 노리에가가 코카인 벌레였다고 말했다

Now when Bush was director of the C.I.A.
Panama traffic in coke was gay
You never used to hear George Bush holler
When Noriega laundered lots of cocaine dollar

*Bush paid Noriega, used to work together
They sat on a couch & talked about the weather*

Then Noriega doublecrossed his Company pal
With a treaty taking back our Panama Canal
So when he got into the big White House
Bush said Noriega was a cocaine louse (CP 1001)

다시 한 번 노리에가가 등장한다. 이번에는 부시와 노리에가의 관계가 엇보인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CIA 국장이었던 부시와 노리에가의 관계는 좋았다. 하지만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시점에서 그 둘의 사이는 틀어진다. 긴즈버그는 노리에가가 배신했다고 했는데, 저주기로 약속해 놓고 이긴다는 뜻이 있는 “doublecrossed”라는 단어로 그것을 표현했다. 이것은 부시와 노리에가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을 뜻한다. 그 거래가 노리에가의 마음대로 되자 부시는 노리에가를 욕하기 시작한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이 축소될 위기에 놓인 미국은 파나마 침공을 단행했다.

*냉전이 끝났었고, 동유럽은 희망을 찾았었다,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에 걸려들었다*

글라스노스트가 왔다, 동유럽은 해방되었다
그래서 부시는 파나마시티로 군대를 보냈다
부시의 무기들은 파나마에서 최악의 일을 벌였다

코카인 중독자들이 성당에서 싸우는 것처럼

*The Cold War ended, East found hope,
The U.S. got hooked in a war on dope*

Glasnost came, East Europe got free
So Bush sent his army to Panama City
Bush's guns in Panama did their worst
Like coke fiends fighting on St. Marks & First (CP 1001)

미국이 파나마 공습을 하고 있던 때 세상은 냉전을 끝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단행했던 개혁 개방정책 중 하나인 글라스노스트는, 소련과 동유럽에 새로운 세상을 안겨주었다. 냉전의 주역 중 하나였던 미국은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 중남미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기치를 내세워 미국은 비인간적 군사행동을 지속했다. 미국은 세상에 새로운 공포를 가져다 놓는다. 그런 미국의 행동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었다.

한편으로,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중동의 상황은 결국 쿠웨이트와 이라크 간의 전쟁인 걸프전을 발발시켰고, 미국은 이 전쟁에도 개입한다. 걸프전의 발발로 긴즈버그는 다시 한 번 전쟁 반대집회에 참가했고, 다음에 인용되는 「그저 네 라고 말해요 칼립소」(“Just Say Yes Calypso”)라는 시를 썼다.

슈워츠코프의 아버지가 이란의 모사데크를 급습했을 때
그들은 사와 사의 비밀경찰 사바크를 집권하게 하였다
그들은 왕의 석유를 끌어올렸지만, 아야톨라의 쓰레기를 취했다
그래서 30년 후에 우리는 이라크를 무장시켜야 했다

비록 독가스를 사용하였지만, 사람은 여전히 우리 편이었다

하지만 콘트라 반군에 협조하기 위해 이란을 무장시켜야 했다

메소포타미아는 괜찮았다

오토만 왕조가 지뢰 위에서 폭발되기 전까지는

그들은 에덴과 우르에 사과밭을 가지고 있었다

뱀이 조지 부시에게 “이 땅은 너의 것”이라고 조언하기 전까지는

그 동산은 혼란스러워졌고, 유황은 무너져 내렸다

좋았던 옛 시절에 우리는 풍부한 오존을 가졌었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는 모두

그 동산에서 혜택을 누렸다 그래서 그 동산은 추락했다

이슬람 왕족과 그들의 화석연료에 중독되었다

경찰국가 수장들과 정보요원 악귀들

When Schwarzkopf's Father busted Iran's Mossadegh
They put in the Shah and his police the Savak
They sucked up his oil, but got Ayatollah's dreck
So Thirty years later we hadda arm Iraq

*Though he used poison gas, Saddam was still our man
But to aid the Contras, hadda also arm Iran*

Mesopotamia was doing just fine

Till the Ottoman Empire blew up on a mine

They had apple orchards in Eden and Ur

Till the Snake advised George Bush “This land is yours”

The Garden foul'd up, brimstone came down

In the good old days we had plenty ozone

The British & Americans & Frenchmen all
Took concessions in the Garden So the Garden took a fall
Got addicted to Emirs and their fossil fuels
Police state Sheiks & Intelligence ghouls (CP 1002)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전쟁 등의 중동국가간의 대립은 분명 민족적 갈등과 석유관련 이권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걸프전은 또한 이라크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변 국가들을 예고 없이 공격하여 정복하기 시작한 전쟁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보이는 논조는 이라크에 대한 비난만으로 보이지 않는다. 긴즈버그는 「그저 네 라고 말해요 칼립소」를 이란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 이 내용은 앞서 살펴보았던 「대중을 위한 시」의 내용과 같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슈워츠코프(Schwarzkopf)라는 인물의 아버지를 언급하며 시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노먼 슈워츠코프(Norman Schwarzkopf Jr.)의 아버지(Norman Schwarzkopf Sr.)는 이란의 1953년 쿠데타와 연관이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아들 슈워츠코프는 걸프전에 미군 총사령관으로 참여했다. 긴즈버그가 보여주는 어떤 연결고리는 이란에 관여한 미국의 정치적 행동이 이라크가 벌인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1953년 쿠데타 다음으로 긴즈버그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이란 이라크 전쟁(Iran - Iraq War)이다. 이란 이라크 전은 1979년의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의 국방력이 약해진 틈을 타 사담 후세인 대통령 주도로 이라크가 1980년에 시작하여 8년간 지속된 전쟁이다. 그런데 긴즈버그는 1953년 쿠데타의 성공 이후 30년 뒤에 “우리가 이라크를 무장하도록 해야 했다”라고 하고 있다. 그것은 이란 이라크 전쟁에 미국이 관여되어 있음을 암시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지원했다는 음모론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필요로 이란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미국은 1979년에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여 자신들의 이란 내 영향력이 약해지자 그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사담 후세인을 도운 것이다. 표면적으로 이란 이라크 전쟁은 민족적 갈등에 더해 경제적인 이유로 사담 후세인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시의 내용은 긴즈버그의 이런 생각을 더욱 뒷받침 해준다. “후세인이 독가스를 사용했음에도 여전히 우리 편이었다”는 이란 이라크전이 한창이던 1988년에 후세인이 이라크 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The Kurds)을 소탕하기 위해 독가스를 사용한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후세인은 우리 편이었다는 것은 당시 미국의 태도를 의미한다. 오늘날까지도 전쟁사에 대표적 반인륜 행위로 언급되는 후세인의 독가스 사용을 미국은 모른 척 했다. 사실 미국에게 후세인도 같은 편은 아니었지만 긴즈버그는 풍자적 표현으로 미국의 행위를 비판다. 뒤이은 내용에서 이란의 반군을 무장시키는 미국은 이쪽저쪽을 왔다 갔다 하며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준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의 이익에 따라 모두가 적이자 동지였다.

걸프전에 대해 생각하던 긴즈버그가 이란의 1953년 쿠데타부터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걸프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고자 했던 것은 그 모든 일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많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긴즈버그의 이 시는 일반적으로 사담 후세인의 과욕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알려진 걸프전이 과연 이슬람 민족 간의 문제이기만 한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라크를 저지한 것은 인류평화의 차원에서 타당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긴즈버그가 자신의 시를 통해 비난을 하는 이유는, 애초에 그런 분쟁의 상황에 서구열강들이 적지 않게 관여되어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라크를 저지하려던 서구 열강들의 행동에는 자신들의 이익이 분명히 계산되어 있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현대 이슬람 민족의 비극은 서구열강들이 만들어내었다. 아시아, 중남미, 중동 지역의 비극 역시도 많은 부분이 서구열강들과 관련되어 있다. 긴즈버그의 시에서 ‘우리(We)’라는 표현을 자주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유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약소국들에게 아픔을 준 것이 여러 국가들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비열한 미국에 시인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도 된다. 「그저 네 라고 말해요 칼립소」의 마지막에서 시인은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코카인과 크랙에 관련된 싸구려 전쟁에서부터
우리는 백만의 폭탄을 이라크의 아이들에게 투하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를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판매할 형편없는 전쟁의 그림을 제공할 것이다

그들이 노란 리본과 기름진 깃발을 흔들 때
그저 네 라고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호모라고 부를 것이다

From a Mickey-Mouse war on cocaine & crack
We dropped a million bombs on the kids in Iraq
How many we killed nobody wants to tell
It'd give a lousy picture of a war they gotta sell

*When they wave a yellow ribbon & an oily flag
Just say yes or they'll call you a fag (CP 1003)*

“우리가 바로 이라크의 아이들에게 폭탄을 터트렸다”는 것은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몇몇의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낸시 레이건 여사의 “그저 아

니라고 말해요”를 패러디 한 제목의 「그저 네 라고 말해요 칼립소」를 통해 긴즈버그는 강조한다. 긴즈버그는 비인간적 행위에 그저 그렇다고 대답을 하며 동조하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우리의 행태를 비꼬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것은 우리 속에 포함되어 그런 행위들을 막지 못한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도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긴즈버그는 우리가 만들어낸 비극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긴즈버그의 우리를 지젝이 말하는 진정한 좌파의 속성으로도 살펴 볼 수 있다. 지젝은 진정한 좌파의 기획은 언제나 사람과 기능(function)을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개념이 좌파의 기획 속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지젝은, 예를 들어 좌파들이 부르주아의 종말을 원하지만 자본가들을 죽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이것을 설명한다. 좌파와 파시스트의 차이로 이것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좌파가 적까지도 우리로 보는 반면에 히틀러는 유대인들이 태생적인 문제가 있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모두를 죽이는 것을 해결책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지젝은 “갈등이 있다고 해도 배제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좌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대의나 소명의식 하에 함께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함께 가자고 외치는 방식이 진정한 좌파의 기획이 되어야 한다”(지젝 186-87)는 것이 지젝의 주장이다. 긴즈버그의 우리에도 적이 없다. 긴즈버그의 적대자들은 적이 아닌 대상이다. 대립을 하더라도 함께 가야할 존재인 것이다. 이런 관점은 전쟁에 대한 긴즈버그의 죄의식과 깊은 회의감을 발생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인용되는 「거창한 퍼레이드 후에」(“After the Big Parade”)와 같은 시에서는 긴즈버그의 회의감이 드러난다. 긴즈버그는 이 시를 통해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 미국에 아쉬움을 표한다. 수십만 명의 이라크인 들이 죽었고 미국의 다음번 자축을

위하여 얼마가 더 죽어야 하는지를 의심한다.

맨해튼에서 기쁨을 위해 환호하며 깃발을 흔드는 수만의 사람들
어제는 그들의 자리로 돌아갔고 관절염이 도지는 오늘은 화요일—
결국 무엇이 그들이 그 넘치는 정열을 원하도록 만들었나, 그런 공동의 환희를—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색종이 날리는 황홀경의 시간을 다시 맛보게 될 것인가?
그들은 이런 승리를 가져다 준 죽음의 복도들을 잊었는가?
또 다른 십만 명이 세계 도처의 사막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다음번 축하행사를 위해서?

Millions of people cheering and waving flags for joy in Manhattan
Yesterday've returned to their jobs and arthritis now Tuesday—
What made them want so much passion at last, such mutual delight—
Will they ever regain these hours of confetti'd ecstasy again?
Have they forgotten the Corridors of Death that gave such victory?
Will another hundred thousand desert deaths across the world be
cause for the next rejoicing? (CP 1010)

1991년 6월 11일에 맨해튼에서는 전쟁승리축하 기념 퍼레이드가 있었다. 그 행사는 사막의 폭풍 작전(Operation Desert Storm)에서 승리한 미국을 위한 것이었다. 사막의 폭풍 작전은 걸프전에서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공습한 작전을 말한다. 이 날, 많은 미국시민들은 뉴욕시청 앞에 모여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긴즈버그는 그들 사이에서 슬픔을 느꼈다. 미국이 성취하는 전쟁의 승리는 동시에 많은 이들의 죽음을 의미한다. 긴즈버그의 슬픔은 전쟁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승리는 미국인들에게 기쁜 일이지만 긴즈버그에게는 슬픈 일이 된다. 긴즈버그는 기뻐하는 미국시민들 사이에서 애석함을 느낀다. 긴즈버그의 애석함은 미국시민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미국인들과 자신의 미국 때문에 상처받은 다른 민족을 모두 우리로 생각하는 것에서 긴즈버그의 애석함은 생겨난다. 기쁨을 가지는 미국인들과 슬픔을 가지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 모두 우리인 것이다. 그래서 긴즈버그의 공동선은 우리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이 장에서 살펴본 내용은 공산 분위기, 냉전, 미국의 내정간섭 그리고 전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긴즈버그가 경험했던 공산주의, 서구 열강이 벌였던 이념대립 그리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국이 벌였던 행동들은 결국 전쟁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념과 전쟁을 위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긴즈버그는 오랜 시간 목격했다. 긴즈버그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전해들은 많은 일들로 인해 고귀한 인권들이 무참히 짓밟혔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열강들의 이기적인 정치행위는 긴즈버그에게 분노와 회의감 그리고 죄의식을 가져다주었다. 폭력적 정치에 반대하는 긴즈버그의 공동선에 대한 노력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긴즈버그가 자신의 시를 통해 여러 사건들을 보여주고자 한 것은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널리 알리어 바로잡고자 함에서 시작되었다.

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특정 사건들을 언급하는 긴즈버그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긴즈버그가 미국정부에 가한 비판이 어떤 것들이며, 시에서 드러내는 사건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보았다. 미국정치, 마약, 국제정세를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2장에서는 긴즈버그가 미국시민으로서 경험해야했던 미국 정치에 대한 시들을 살펴보았다. 긴즈버그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과정과 반문화적 자세를 지속하고 정치적 혁명을 꿈꾸도록 만든 비민주적 미국정치,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는 긴즈버그의 생각이 드러나는 시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마리화나를 비롯한 마약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미국정치의 역사를 조사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긴즈버그가 마약에 대해 가지는 사상이 생겨나는 배경에서부터 미국정부가 긴즈버그와 주변 인물들을 마약을 통해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사실, 그래서 미국이 마약으로 어떤 부당한 정치적 행위를 행했는지를 긴즈버그가 조사하고 그 내용을 담아 만든 시들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국제정세와 그것에 관련된 미국정치에 대한 내용이 담긴 시들이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긴즈버그가 경험했던 공산주의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느낀 냉전시대의 억압적 분위기를 담고 있는 시들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한 미국이 만들어낸 인권유린의 상황과, 정치논리 때문에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들이 연구되었다.

지금까지 긴즈버그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은 과연 긴즈버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무엇을 드러내며 그것에서 어떤 반문화적 시학과

정치성이 나타나는가이다. 특히, 긴즈버그의 문학 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트세대의 1950년대를 넘어서 보여주는 작품들은 어떤 것인지를 규명해 보고자는 것이었다. 시대상이 잘 드러나는 긴즈버그의 작품들은 어쩌면 시대에 편승하려는 알박한 의도를 가지고 시 창작에 몰두했는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평생 자신이 시인임을 자각하며 문학성과 예술성을 추구했던 긴즈버그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것은 그렇게 쉽게 결론지을 수 없다. 젊은 시절 유명세의 허망함을 몸소 체험한 시인이 자신의 작품에 시대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려 한 까닭은 분명히 있다. 특수한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 또한 분명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긴즈버그의 비판은 미국 정부나 미국 정치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긴즈버그는 미국시민들에게도 거침없는 쓴 소리를 했다. 이것은 긴즈버그의 비판이 단순히 인기에 영합한 처신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긴즈버그의 그런 비판적 태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긴즈버그의 반문화적 시학과 정치성은 철저하게 인간본위의 사상에 뿌리를 둔다. 그것은 히피들의 기치였던 사랑과 평화(Love and Peace)로도 표현 가능하다.

긴즈버그는 세상에 겁을 먹기도 했고 세상에 맞서 싸우기도 했다. 자신의 입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자신의 행동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품기도 했다(Morgan 574). 하지만 긴즈버그는 결국 상실된 인간성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은 시 라는 생각했으며, 가장 진실 된 것이 시 이고 시 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가졌다(Morgan 573). 그것이 긴즈버그가 시를 지속적으로 쓴 이유이자 긴즈버그 시에서 반문화적 정치시학이 나타나는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은 긴즈버그의 작품이 내면의 고백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긴즈버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많은 사건들을 시를 통해 세상에 알렸다. 그 외침은, 자아성찰의 50년대를 지나면서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이 된 긴즈버그의 비판과 만나 긴즈버그의 문학성으로 완성되었다. 긴즈버그는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정치시를 쓰거나 사회활동에 참가하지 않았다. 긴즈버그가 정치적 입장을 취한 것은 공동의 이익이 있을 때였고 인권이 침해당할 때였다. 궁극적으로는 중도를 지향했다고 할 수 있는 긴즈버그가 주저하지 않고 좌파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던 것은 침해받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긴즈버그의 목표에는 항상 바른 세상이 있었다. 긴즈버그는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반대하기 위해 올바르지 못했던 일을 자신의 시에서 보여주었고, 항상 올바르지 못한 것을 경계했다. 잘못된 미국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항상 자신들의 폭력성을 경계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긴즈버그는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모든 일들을 반대했다. 그래서 긴즈버그는 한 편에만 서 있지 않았다.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긴즈버그의 태도이었다. 긴즈버그의 정치적 활동이 미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긴즈버그의 정치성에는 긴즈버그만의 주체성이 있다. 긴즈버그의 궁극적인 정치적 지향점은 정의(Justice)다. 이것을 독자들은 긴즈버그의 작품 전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긴즈버그에 대한 연구가 1950년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긴즈버그의 시는 지적이 정의하는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가치가 증가한다. 지적이 말하는 지적 재산이란 한 번 사용되면 효용을 잃어버리는 병에 들은 음료수와 달리 “더 많이 퍼져나가고 사용될수록 그 효용은 더 커지는”(지책 111-12) 지식을 말한다. 이 연구

에서 살펴본 긴즈버그 시에 담겨진 이야기들도 많이 퍼져 나갈수록 효용이 더 커진다. 우리가 삶에서 직접적으로 당면한 사회문제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즈버그의 시가 가지는 중요성은 사회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유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긴즈버그의 시를 통해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 즉, 지젝이 말하는 “진정한 사유”가 가능하게 한다. 지젝은 “사유라는 것의 일차적인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문제 상황인가’, ‘이것이 문제를 드러내는 올바른 방법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결론에 도달 했는가’ 등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한다”고 말한다(지젝 98-99). 긴즈버그의 시는 이러한 사유의 첫 단계를 가능하게 한다.

지젝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논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선 시위나 행동보다 문제를 제대로 사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중들의 폭발적 운동이 단숨에 사라지지 않을 근본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지젝 263-64)이라고 설명한다. “지금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골라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무엇에 대항하여 싸울지를 결정한 후에 대중적인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변화의 방법일 수 있다”(지젝 264)는 것이다. 긴즈버그의 시를 통해 살펴 본 많은 사회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산재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긴즈버그 시에 나타난 사회문제들을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입하여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긴즈버그의 시들은 우리가 사유할 때 더욱 의미가 생기며 그 의미의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하겠다.

긴즈버그의 많은 시들이 긴즈버그나 주변 인물들과 관련된 일 또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그런 시들의 대부분이 특정 사건에 대한 부가설명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긴즈버그가 시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 이것은 시를 해석하기 위해선 작가의 개인적인 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고백시의 특징이기도 한데, 긴즈버그의 경우는 국제정세나 사회적 사건에 대해 다룬 시들도 많아서 시인의 신상 외에도 시를 파악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내용이 많다. 본 연구에서 시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들어간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연구의 주제에 맞는 긴즈버그의 시 중에서 많이 읽혀지지 않은 시를 찾고 해석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긴즈버그가 시 속에 써놓은 단서들을 추적하여 긴즈버그가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내려 노력했다. 그러기 위해 긴즈버그의 개인사나 역사적 사건들을 조사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정치에 관련된 긴즈버그의 시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밝혀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많이 언급된 가정사에서 비롯된 긴즈버그의 정치성에 대한 부분을 비롯해 미국 정치인들의 비민주적 정치행태 또는 중동이나 중남미 등의 나라에 내정간섭을 했던 역사 등이 그것에 속한다. 이런 단서들은 긴즈버그의 정치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시들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문학적 측면의 연구만이 아닌 사회과학적 측면의 연구에도 활용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긴즈버그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건들은 인류가 현대사회를 살아온 발자취들이다. 문제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긴즈버그 시에서 발견한 역사와 흡사한 사건들을 여전히 마주하며 살고 있다. 마약, 전쟁,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인들의 비민주적 정치행태와 관련한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긴즈버그는 그런 역사들을 시에 담아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긴즈버그의 시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당면한 구체적인 사회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긴즈버그의 시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아직 긴즈버그의 시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는 사회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정치와 관련된 긴즈버그 시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긴즈버그의 시가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인용문헌

- 김봉중. 「베트남 전쟁의 기억과 미국외교」. 『미국사연구』 34 (2011): 213-44.
- 김재명. 「이란 이슬람혁명 30년 평가」. 『내일을 여는 역사』 37 (2009): 242-70.
- 남궁현. 「마리화나 정책 변화의 고찰」. 『형사정책연구』 25.3 (2014): 325-52.
- 노용석. 「엘살바도르 내전과 냉전의 상처: 엘모소떼(El Mozote) 학살의 진실과 의미」. 『민주주의와 인권』 11.2 (2011): 279-316.
- 박경서. 「George Orwell의 정치소설 연구」. 『신영어영문학』 5 (1994): 123-44.
- 손혜숙. 「계시의 수사와 정치학-긴즈버그의 「울부짖음」과 「캐디쉬」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57.4 (2011): 529-52.
- 이홍필. 「로버트 로월의 미국 역사와 문명화 비판」. 『현대영미시연구』 13.1 (2007): 79-115.
- 소로, 헨리 데이비드. 『시민의 불복종: 야생사과』. 강승영 옮김. 서울: 은행나무, 2011.
- 정은귀. 「앨런 긴즈버그의 생태적 상상력: 「해바라기 경전」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시연구』 22.1 (2016): 147-80.
- 지젝, 슬라보예.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슬라보예 지젝 인터뷰』. 인디고 연구소(Ink) 옮김. 서울: 궁리출판, 2012.
- 푸코, 미셸. 『감시와 처벌-감옥의 탄생』. 오생근 옮김. 파주: 나남, 2017.
- Gee, Shaleane. "Questions of Competence: Testimony in Postwar American Literary and Political Culture." Diss. Chicago U, 2002.
- Ginsberg, Allen. *Allen Verbatim: Lectures on Poetry, Politics, Consciousness*. Ed. Gordon Ball. New York: McGraw-Hill, 1974. [AV로 약기함]
- _____. *Collected Poems 1947-1997*. New York: Harper, 2006.

- [CP로 약기함]
- _____. *Deliberate Prose: Selected Essays 1952-1995*. Ed. Bill Morgan. New York: Harper, 2001. [DP로 약기함]
- _____. *Spontaneous Mind: Selected Interviews, 1958-1996*. Ed. David Carter. New York: Harper Perennia, 2002. [SM으로 약기함]
- _____. *Wait Till I'm Dead: Uncollected Poems*. Ed. Bill Morgan. New York: Grove, 2016. [WT로 약기함]
- Gerber, Rudolph J. *Legalizing Marijuana: drug policy reform and prohibition politics*. Connecticut: Greenwood, 2004.
- Heims, Neil. *Allen Ginsberg (G& Lu) (Gay and Lesbian Writers)*. New York: Chelsea House, 2006.
- Islam, Mohiul. "September on Jessore Road: A Museum of Sufferings." *ISOR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4 (2016): 28-32.
- Katz, Eliot. *The Poetry and Politics of Allen Ginsberg*. [London]: Beatdom, 2016. [Poetry로 약기함]
- _____. "Radical Eyes: Political Poetics and the Work of Allen Ginsberg." Diss. Rutgers U, 2000.
- Morgan, Bill. *I Celebrate Myself: The Somewhat Private Life of Allen Ginsberg*. New York: Penguin, 2006.
- McMillian, John. *Smoking Typewriters*. New York: Oxford, 2014.
- Orwell, George. *A Collection of Essays by George Orwell*. New York: Doubleday, 1954.
- Paulke, Alexander, et al. "Analysis of Lysergic acid amide in human serum and urine after ingestion of *Argyreia nervosa* seeds." *Analytical and*

Bioanalytical Chemistry 404 (2012): 531–38.

Ramazani, Jahan, et al. eds. *The Norton Anthology of Modern and Contemporary Poetry*. 3rd Edition Vol 1, 2. New York: Norton, 2003.

Sanders, Edward. *The Poetry and Life of Allen Ginsberg: A Narrative Poem*. New York: Overlook, 2000.

Spangler, Jason Scott. “*From the Great Depression to the Grateful Dead: Cultural Memory and the Beat Generation.*” Diss. California Riverside U, 2005.

Tytell, John. “An Emotional Time Bomb: Allen Ginsberg’s “Howl” at 60.” *The Antioch Review* 73.4 (2015): 636–46.

Walker, Luke. “Allen Ginsberg’s ‘Wales Visitation’ as a neo-Romantic response to Wordsworth’s ‘Tintern Abbey’.” *Romanticism* 19.2 (2013): 207–17.

